

‘동사상 이론’에 대한 비판적 평가와 주석적 적용 및 제한점 제안

장성민*

1. 서론

본 연구의 목적은 지난 30여 년 전부터 꾸준히 진행되어 온 고대 그리스어(ancient Greek) 연구의 팔목할 만한 진전들, 특히 ‘동사상 이론’(verbal aspect theory)을 진앙으로 하는 시제 이해에서의 지각변동과 그로 인해 연쇄적으로 발생한 인접 영역(담론 분석 등)의 지형 변화를 비판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신약성서 연구에 적용하는 방안 및 제한점들을 제시함으로써 관련 논의를 활성화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동사상 이론’은 1990년 전후 신약성서 학계에 본격적으로 제출된 이후 치열한 논쟁을 거쳐 왔고, 1) 현재는 상당한 정도의 학문적 공감

* 장로회신학대학교에서 신약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음. 현재 동 대학교 성서학연구원 특별연구원. hefzibar0813@gmail.com. 이 논문은 2022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22S1A5B5A16050421). 이 논문은 2023년 11월 4일(토)에 개최된 한국기독교학회 신약분과에서 발표한 논문을 수정, 보완한 것이다. 좌장과 논찬자로 유익한 토론을 이끌어 주신 문배수 교수님, 오현정 박사님께 감사드리며, 발표문을 미리 읽고 의견을 제시해 주신 신찬기(Chanki Shin) 박사님께도 감사드린다. 아울러 줄고를 면밀하게 읽고 유익한 의견을 개진해 주신 심사자들과도 심심한 감사를 드린다.

1) 기존 언어학에서는 B. Comrie, C. Bache, C. S. Smith 등이 이미 이런 문제를 제기했으나, 신약성서 그리스어에 국한하자면 이 분야의 선구적인 연구는 1960년대 중반 맥케이(K. L. McKay)로부터 시작되었다. K. L. McKay, “The Use of the Ancient Greek Perfect Down to the End of the Second Century AD”, *BICS* 12 (1965), 1-21. 주지하듯이, 이후 ‘동사상 이론’을 신약성서 그리스어 분야에 본격적으로 제출한 연구는 다음과 같다: S. E. Porter, *Verbal Aspect in the Greek of the New Testament with Reference to Tense and Mood*, *Studies in*

대에 이르렀다. 무엇보다 이 이론은 시점 중심의 이해 - 최소한 아리스토텔레스(Aristotle)²⁾까지 소급되며 트락스(Dionysius Thrax)³⁾에 의해 보편화된 - 가 19세기 말엽 브루크만(K. Brugmann),⁴⁾ 블라스(F. Blass)⁵⁾ 등의 주도로 탈각(脫却)되면서 *Aktionsart* 중심의 이해로 대체된 이후 한 세기 가까이 정상과학으로 군림하던 기존의 시제 이해를 비판하고 새로운 대안을 제시했을 뿐만 아니라, 인접 영역에까지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는 뜻에서 명실상부한 ‘이론’의 지위를 획득했다.⁶⁾ 논의를 촉발한 장본인 가운데 한 명인 패닝(B. M. Fanning)의 회고적 평가에 따르면, 관련 논쟁에 참여한 학자들이 이루어 낸 합의는 대략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Biblical Greek 1 (New York: Peter Lang, 1989); B. M. Fanning, *Verbal Aspect in New Testament Greek*, Oxford Theological Monographs (Oxford: Clarendon Press, 1990). 이어진 후속 논의들로는 M. B. Olsen, *A Semantic and Pragmatic Model of Lexical and Grammatical Aspect*, Outstanding Dissertations in Linguistics (New York: Garland, 1997); R. J. Decker, *Temporal Deixis of the Greek Verb in the Gospel of Mark with Reference to Verbal Aspect*, Studies in Biblical Greek 10 (New York: Peter Lang, 2001); T. V. Evans, *Verbal Syntax in the Greek Pentateuch: Natural Greek Usage and Hebrew Interferenc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1); C. R. Campbell, *Verbal Aspect, the Indicative Mood, and Narrative: Soundings in the Greek of the New Testament*, Studies in Biblical Greek 13 (New York: Peter Lang, 2007); C. R. Campbell, *Basics of Verbal Aspect in Biblical Greek* (Grand Rapids: Zondervan, 2008); C. R. Campbell, *Verbal Aspect and Non-Indicative Verbs: Further Soundings in the Greek of the New Testament*, Studies in Biblical Greek 15 (New York: Peter Lang, 2008); C. R. Campbell, *Advances in the Study of Greek: New Insights for Reading the New Testament* (Grand Rapids: Zondervan, 2015), 105-133; D. L. Mathewson, *Verbal Aspect in the Book of Revelation: The Function of Greek Verb Tenses in John's Apocalypse*, LBS 4 (Leiden: Brill, 2010); D. S. Huffman, *Verbal Aspect Theory and the Prohibitions in the Greek New Testament*, Studies in Biblical Greek 16 (New York: Peter Lang, 2014); S. E. Porter, B. M. Fanning, and C. R. Campbell, *The Perfect Volume: Critical Discussion of the Semantics of the Greek Perfect Tense under Aspect Theory*, Studies in Biblical Greek 17 (New York: Peter Lang, 2015) 등을 보라.

- 2) Aristotle, *Περὶ ἑρμηνείας*, 3: “ῥῆμα δὲ ἐστὶ τὸ προσσημαῖνον χρόνον”(동사는 시간을 함의하는 것이다).
- 3) Dionysius Thrax, *Τέχνη Γραμματική*, 13: “ῥῆμα ἐστὶ λέξις ἄπτωτος, ἐπιδεικτική χρόνων τε καὶ προσώπων καὶ ἀριθμῶν”(동사는 격을 갖지 않는 단어로서, 시간과 더불어 인칭과 수를 나타낸다).
- 4) K. Brugmann, *Griechische Grammatik, II.i: Lautlehre, Stammbildungs und Flexionslehre, Syntax* (Munich: C. H. Beck, 1913; org. ed. 1885).
- 5) F. Blass, A. Debrunner and F. Rehkopf, *Grammatik des neutestamentlichen Griechisch* (Vandenhoeck & Ruprecht GmbH & Co, 2021; org. ed. 1896). 이 책의 10판은 1961년에 R. W. Funk에 의해서 개정, 번역되었다. F. Blass and A. Debrunner, *A Greek Grammar of the New Testament and Other Early Christian Literature*, R. W. Funk, trans. and rev. (Chicago: Chicago University Press, 1961). 아래에서는 주로 이 영역본을 참조하되, BDF라고 약기(略記)한다.
- 6) 특정한 학문 분야에서 ‘이론’의 개념과 위상에 대한 논의는 J. Culler, 『문학이론』, 조규형 역 (서울: 교유서가, 2016), 10-38을 참조하라.

“... 네 가지 합의 사항들은 다음과 같다: (1) 동사상(verbal aspect)은 고대 그리스어 동사의 의미(verbal meaning)를 이해하는 데 핵심이다. 2) 상(aspect)은 시점(viewpoint), 곧 화자가 어떤 행위나 상태를 바라보는 관점(perspective)의 문제로서, 흔히 *Aktionsarten* 또는 동작의 종류들(kinds of action)이라고 불리는 절차 혹은 동작의 특징들(procedural or actional characteristics)과는 의미론적으로 다른 범주다. 3) 그리스어의 부정과거(aorist)는 ‘완결상’(perfective aspect)이며, 현재(present)와 미완료(imperfect)는 ‘비완결상’(imperfective aspect)이다. 4) 특정 종류의 담론 구성에 있어서는 그리스어의 동사상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⁷⁾

물론 상의 종류와 분류, 완료 시제-형태들(perfect tense-forms⁸⁾)의 의미와 위상, 상과 시제의 관계, 상과 ‘동작의 종류’(Aktionsart)의 관계, 시제-형태별 두드러짐(prominence[현저성])의 차이에 대한 평가 등 세부적인 사안들은 여전히 논쟁 중이지만, 논의에 참여해 온 대다수의 학자는 앞서 언급한 내용에 대체로 동의한다.⁹⁾ 이에 따라 고대 그리스어 시제에 관한 기존의 설명 체계를 대체하거나 보완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실제로 형태론, 구문론, 의미론, 화용론, 담론 문법과 담론 분석 등 여러 분야에서 ‘동사상 이론’에 입각한 설명들이 활발하게 제출되고 있다.¹⁰⁾ 하지만 이에 비해 국내의 연구 상황은 주목할 만한 일부 선행 연구들을 제외하면 여전히 간헐적인 논의에 머물고 있으며,¹¹⁾ 관련 논의들과 ‘동사상 이론’의 핵심 주장들이 국내 학계에서 충분히 공유되거나 검토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¹²⁾ 새

7) B. M. Fanning, “Porter and Fanning on New Testament Greek Verbal Aspect: Retrospect and Prospect”, S. E. Runge, and C. J. Fresch, eds., *The Greek Verb Revisited: A Fresh Approach for Biblical Exegesis* (Bellingham: Lexham Press, 2016), 11(7-12).

8) ‘시제-형태’(tense-form)란 동사들의 형태론적 차이들을 구별하되, ‘시제’(tense)라는 용어가 연상시키는 ‘시간’(time)이라는 함의를 불식시키기 위해 관련 논의에 참여하는 일부 학자들이 궁여지책으로 선택한 조어(造語)다.

9) 예컨대, H. von Siebenthal, *Ancient Greek Grammar for the Study of the New Testament* (Peter Lang: New York, 2019), 304-317; E. van Emde Boas, et al, *The Cambridge Grammar of Classical Greek*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9), 405(§33.6).

10) 예컨대 R. J. Decker, *Reading Koine Greek: An Introduction and Integrated Workbook* (Baker Academic: Grand Rapids, 2014); A. J. Köstenberger, et al., *Going Deeper with New Testament Greek: An Intermediate Study of the Grammar and Syntax of the New Testament* (Nashville: B&H Academic, 2015); H. von Siebenthal, *Ancient Greek Grammar for the Study of the New Testament* 등은 최근의 논의를 반영한 최신 문법서들이다.

11) 주목할 만한 국내의 선행 연구들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고병찬, 김주한, “헬라어 동사의 상(相, aspect)의 주석적 사용의 주의점 제안”, 「신약연구」 10:4 (2011), 789-823; 박윤만, “신약성서 헬라어의 현저성 표지들(Prominence Markers)”, 「신약연구」 9:2 (2010), 309-334; 박윤만, “동사상과 빌레몬서 담화처리”, 「신약연구」 10:4 (2011), 941-976; 우상혁, “성경 헬라어 상 연구: 칠십인경 중심으로”, 「성경과 신학」 60 (2011), 59-83.

로운 이론은 그것의 정당성이나 설명 가능성과 무관하게 관련 논의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게 마련이지만, 국내의 사정은 학문적 지체 현상이라고 불려야 할 만큼 널리 활성화되어 있지는 못한 셈이다.

이에 아래에서는 우선 국내의 선행 연구들을 간략하게 살펴보고, 앞서 언급한 대략적인 공감대를 중심으로 ‘동사상 이론’을 개괄적으로나마 충실히 소개하되, 무비판적인 수용을 경계하는 차원에서 요목별로 나름의 비판적 평가를 곁들이도록 하겠다. 특히 이 과정에 시간이 두드러지는 언어(time-prominent language)인 우리말 문법 체계와의 관련성, 번역 과정에 고려해 봄직한 논점 등에 비추어 ‘동사상 이론’을 적용할 때의 난점이나 가능성 등을 타진해 보고, 결론적으로 본문 주석 시에 주의해야 할 제한점을 제안하겠다.

2. 국내의 선행 연구들

먼저 국내의 주요 선행 연구들을 간략하게 일별해 보자.¹³⁾ 내가 보기에 가장 주목할 만한 선행 연구는 고병찬/김주환의 “헬라어 동사의 상(相, aspect)의 주석적 사용의 주의점 제안”(2011)이다. 이 연구는 본고와 문제의 식 및 접근 방식이 상당히 유사하며, 관련 논의에서 논란이 되는 논점들을 잘 정리하고 있어 여전히 참고할 만한 좋은 연구다. 다만 이 연구는 ‘동사상 이론’을 주석적으로 사용할 때 주의해야 할 점에 주목하느라 이 이론이 노출하고 있는 문제점 위주로 논의를 진행하는 까닭에, ‘동사상 이론’ 자체에

12) 관련 연구의 진전이 널리 공유되지 못한 상황은 국외라고 해서 크게 다르지 않다. 예를 들어, “지난 25년 동안에 이룩하지 못한 유감스러운 점들 가운데 하나는 이와 같은 합의 점들이 덜 학문적이면서도 더 넓은 범위의 독자들에게 더 효과적으로 알려지지 못했다는 것이다”라는 패닝(B. M. Fanning)의 소회(B. M. Fanning, “Porter and Fanning on New Testament Greek Verbal Aspect”, S. E. Runge and C. J. Fresch, eds., *The Greek Verb Revisited*, 11)나 논문을 준비하기 위해 고대 그리스어 교수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간이 설문 조사에 의거하여 “... 동사상에 관한 다양한 관점들을 두고 벌어지는 토론이 극소수 전문가들에 국한되어 있다”는 취지의 잠정적 결론에 도달한 피키릴리(R. E. Picirilli)의 평가(R. E. Picirilli, “The Meaning of the Tenses in New Testament Greek: Where Are We?”, *JETS* 48:3 [2005], 554) 등을 보라.

13) 연구사를 정리하고 나름의 평가를 제시하는 국외 연구들로는 C. R. Campbell, *Advances in the Study of Greek: New Insights for Reading the New Testament* (Grand Rapids: Zondervan, 2015), 105-133; G. E. Lamb, “Verbal Aspect, Aktionsart, and the Greek New Testament: The Approaches of Constantine R. Campbell and Stanley E. Porter”, *Presbyterion* 43(2017), 95-130; R. E. Picirilli, “The Meaning of the Tenses in New Testament Greek”, 533-555 등을 보라.

대한 체계적인 설명이나 평가가 다소 부족하다는 아쉬움이 있다. 이 연구가 주목한 문제점은 크게 두 가지로서, 하나는 ‘동사상 이론’에 동조하는 학자들 사이에도 상에 대한 이해가 저마다 다르다는 것이고,¹⁴⁾ 다른 하나는 시제-형태의 선택이 오히려 저자의 재량에 의해 이루어지지 않으며 오히려 사건의 성격이나 문맥, 진술 방식 등에 의해 제한된다는 점이다.¹⁵⁾ 이에 따라 서론과 결론을 제외한 나머지 연구는 앞서 언급한 두 가지 문제점을 상술하고 나름의 제안을 제시하는 이분(二分) 구조(본론에 해당하는 2절[“첫 번째 문제점과 제안”, 792-802]과 3절[“두 번째 문제점과 제안”, 802-819])로 짜여 있다. 특히 이 연구의 3절(“두 번째 문제점과 제안”)은 동사상의 선택에 따른 현저성(prominence/salience[아래에서는 인용을 제외하면 주로 ‘두드러짐’으로 표현하겠다.])의 문제와 이러한 선택을 통해 파악되는 저자의 의도라는 관점에 입각하여 요한복음 1:1-18을 면밀하게 분석한 설명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매우 유용하고 실질적이다. 그럼에도 이 연구는 ‘동사상 이론’과 관련해 논쟁이 되는 지점들을 지적하고 최소한의 합의 사항들을 제시할 뿐 이 이론의 주요 내용 자체를 체계적으로 설명하지는 않아서, 해당 논의에 대한 선이해가 부족한 독자들의 경우 이 연구가 제안하는 방식을 주석 과정에 적용하는 데 다소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박윤만의 “신약성서 헬라어의 현저성 표지들(Prominence Markers)” (2010)은 텍스트 이해에 필수적인 현저성 개념을 상세히 서술하고 신약성서에서 특정 낱말, 구, 문장, 주제, 모티브 등이 근접 요소들에 비해 초점화(focalization)되는 언어적, 문법적 방식들(정보의 반복, 어순, 문장 구조 등)을 일목요연하게 제시한다.¹⁶⁾ 이 연구는 이러한 방식들의 일환으로 동사상 개념과 그것이 갖은 현저성의 차이 및 담화 분석에서의 기능을 비교적 소상하게 다룬다.¹⁷⁾ 같은 저자의 “동사 상과 빌레몬서 담화 처리”(2011)는 동사 상 개념과 각 상에 따른 현저성의 차이를 상세하게 설명하고 이를 빌레몬서의 주제 형성, 현저성에 입각한 담화 구조분석, 본문 주석 등에 적용한 중요한 연구다.¹⁸⁾ 하지만 이 연구들 역시 ‘동사상 이론’ 자체에 대한 설명이나 평가라기보다, 관련 논의들에 대한 상당한 선이해를 전제한 채 해당 논의를 주로 구체적인 본문에 적용한 것들이다.

끝으로 이상혁의 “성경 헬라어 상 연구: 칠십인경을 중심으로”(2011)는

14) 고병찬, 김주한, “헬라어 동사의 상(相, aspect)의 주석적 사용의 주의점 제안”, 790-791.

15) Ibid., 791-792.

16) 박윤만, “신약성서 헬라어의 현저성 표지들”, 311-324.

17) Ibid., 324-327.

18) 박윤만, “동사상과 빌레몬서 담화처리”, 941-976.

비록 히브리어 성경의 그리스어 번역본이긴 하지만 칠십인역의 용례들을 중심으로 고대 그리스어의 상 개념을 매우 상세하고 입체적으로 설명하는 연구다. 무엇보다 문법 범주로서 상의 개념, 완결상(perfective aspect)과 비완결상(imperfective aspect)으로 대별되는 상의 종류,¹⁹⁾ 문장과 텍스트 내에서 상의 쓰임 등을 자세하게 서술하고 다양한 용례들을 들어 설명한다는 점에서 입문자들에게 매우 유익한 연구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상 개념을 ‘동작의 종류’(Aktionsart) 개념과 혼동해서 설명하는 부분이 적지 않으며,²⁰⁾ 이러한 설명 방식에 우리말 문법의 상 개념까지 더해지면서 혼란이 더욱 가중되는 모양새를 띠기도 한다. 흥미로운 점은 ‘동사상 이론’ 주장자들이 상에 따라 담론을 분석할 때 통상 완결상인 부정(과거)시제-형태(aorist tense-form)를 배경(background)으로, 비완결상인 현재시제-형태(present tense-form)를 전경(foreground)으로 분류하는 반면, 우상혁은 이를 반대로 분석한다는 점이다.²¹⁾ 하지만 아쉽게도 이 연구는 완결상과 비완결상이 문장이나 텍스트에서 차지하는 역할의 차이에 주목할 뿐, 담론 내의 두드러짐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을 제시하지는 않는다.

나도 ‘동사상 이론’의 주요 내용을 전제한 채 이를 활용하여 마가복음의 서사 구조를 분석하거나,²²⁾ 특정 구조의 분사구문을 번역하거나,²³⁾ 상위어와 하위어 사이의 관계를 분석하고 이 관계를 번역에 반영하는 방식을 제안하는 등²⁴⁾ 관련 논의에 미력하게나마 일조하였으나, ‘동사상 이론’ 자체를 개괄적으로 서술하고 이를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연구를 제출하지는 못했다.²⁵⁾

따라서 해당 논의에 밝은 극소수의 전문가들을 제외하면, 앞서 언급한 연구들은 이 이론에 익숙하지 않은 독자들에게 과중한 선이해를 강요하는

19) 사실 우상혁은 perfective aspect와 imperfective aspect를 각각 ‘완료상’과 ‘미완료상’으로 옮기지만, 이는 ‘완결상/비완결상’이라고 옮기는 것이 더 나아 보인다. 아래 각주 33을 보라.

20) 우상혁, “성경 헬라어 상 연구: 칠십인역을 중심으로”, 63-74.

21) Ibid., 74-78. 이 지점은 ‘동사상 이론’ 추종자들과 일반 언어학의 대체적인 입장이 갈리는 곳이기도 하다. 아래의 논의를 보라.

22) 장성민, “‘동사상 이론’에 비추어 본 마가복음의 서사 구조”, 『신약논단』 28:3 (2021), 501-534.

23) 장성민, “마가복음의 부사적 분사 번역 제안-마가복음 1:1-16을 중심으로”, 『신약논단』 26:2 (2019), 301-342.

24) 장성민, “마가복음에서 상위어(hypernym)로 쓰이는 λέγω의 현재 시제-형태 번역 제안”, 『신약논단』 29:1 (2022), 1-30.

25) 장성민, 『중급 신약성경 헬라어 문법』 (서울: 한국성서학연구소, 2018), 29-48에서 상 개념, 시제-형태와 시간의 관계, 현재성 등을 중심으로 이런 작업을 부분적으로 시도하였으나, 아래 ‘III. ‘동사상 이론’의 주요 주장과 비판적 평가’ 단락에서 제시하는 설명의 열거는 패닝의 회고적 주장에 기초한 것으로서 출처의 설명과는 요목(要目)과 평가가 다르다.

난점이 있다. 그리스어 시제-형태를 상 중심으로 이해하는 최근의 흐름에 익숙한 독자들에게는 상당히 유용한 연구들이지만, 해당 논의에 익숙하지 않은 독자들에게는 다소 불친절하고 난해하게 느껴질 수 있는 것이다. 이런 까닭에 국내외를 막론하고 이 논의에 참여하는 학자들 사이에는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한 과신(過信)이, 논의를 지켜보는 독자들 사이에는 이 낯선 패러다임에 대한 불신(不信)이 오히려 양 진영 간의 ‘거리감’(remoteness)이 커지고 소외가 증증하는 형국이다.

3. ‘동사상 이론’의 주요 주장과 비판적 평가

그렇다면 ‘동사상 이론’의 주요 주장은 무엇인가? 아래에서는 앞서 언급한 패닝의 회고적 평가를 일개로 삼아 ‘동사상 이론’의 주요 주장들을 ‘시제-형태의 어간에 내재된 의미로서 상’, ‘화자/저자의 주관적 관점으로서 상’, ‘관점의 종류’, ‘답론 구성에서의 역할’이라는 네 가지 범주로 나누어 개괄적으로 제시하되, 새로운 이론에 대한 무비판적인 수용을 경계하는 차원에서 요목별로 내 나름의 비판적 평가를 곁들이겠다.

3.1. 시제-형태의 어간에 내재된 의미로서 상

단적으로 ‘동사상 이론’을 요약하자면, 이 이론은 직설법을 위시한 모든 서법의 정동사들과 분사, 부정사를 포괄하는 고대 그리스어의 동사 상당어들의 의미를 이해하는 핵심이 ‘시간’(time)이나 ‘시제’(tense), 또는 ‘동작의 종류’(Aktionsart)가 아니라 ‘상’(aspect)에 있다는 주장이다. 예컨대, 아래 문장에 나오는 각기 다른 시제-형태의 동사(상당어)들을 번역할 때는 각 시제-형태가 표현하는 핵심 의미를 무엇이라고 보느냐에 따라 번역문에 담으려는 취지가 미묘하게 달라진다.²⁶⁾

Καὶ ἐξῆλθεν ὁ Ἰησοῦς καὶ οἱ μαθηταὶ αὐτοῦ εἰς τὰς κάμας
Καίσαρείας τῆς Φιλίππου· καὶ ἐν τῇ ὁδῷ ἐπῆρώτα τοὺς μαθητὰς
αὐτοῦ λέγων αὐτοῖς·(막 8:27ab)

26) 아래에서 보듯이 우리말 번역에는 큰 차이가 없으며, 우리말의 특성상 시제-형태의 핵심 의미를 무엇이라고 보느냐에 따라 번역문에 담으려는 미묘한 의미 차이는 부사 등으로 보충되어야 한다.

1) 시제 중심: “그리고 예수와 그의 제자들이 빌립보의 가이사라에 속한 마을들로 나갔다(ἐξῆλθεν, 과거의 행위). 그런데 그가 길에서 자기 제자들에게 물었다(ἐπηρώτα, 과거의 행위). 그들에게 말하기를(λέγων, 주동사와 동시적 행위) ...”

2) 동작의 종류 중심: “그리고 예수와 그의 제자들이 빌립보의 가이사라에 속한 마을들로 나갔다(ἐξῆλθεν, 일회적 동작). 그런데 그가 길에서 자기 제자들에게 (계속) 물었다(ἐπηρώτα, 반복적 동작?). 그들에게 (계속) 말하기를(λέγων, 반복적 동작?) ...”

3) 상 중심: “그리고 예수와 그의 제자들이 빌립보의 가이사라에 속한 마을들로 나갔다(ἐξῆλθεν, 완결상). 그런데 그가 길에서 자기 제자들에게 ‘이렇게’²⁷⁾ 물었다(ἐπηρώτα ... λέγων, 비완결상) ...”

이를 조금 더 엄밀하게 표현하자면, 고대 그리스어 동사 상당어의 ‘시제-형태 어간’(tense-form stem)에 ‘내재적 의미’(inherent meaning)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그간 학자들이 ‘시제’(tense)나 ‘동작의 종류’(Aktionsart)라는 답을 제시해 온 것과 달리 ‘동사상 이론’에 동조하는 학자들은 이 질문에 ‘상’(aspect)이라고 답하는 셈이다.²⁸⁾

여기에서 중요한 요소는 ‘어간’과 ‘내재된 의미’라는 개념이다. 우선 고대 그리스어 동사의 의미(verbal meaning)를 파악하는 핵심이 시간/시제나 동작의 종류나 아니면 상이냐를 따지는 형태론적 단위가 실제로 활용(conjugation²⁹⁾)이 이루어진 개별 시제-형태(위에서 예로 든 구절들의 경우

27) 상위어(hyponym)로 쓰인 현재-시제 형태의 분사 λέγων의 어휘적 의미를 살리지 않고 후방지시적 부사인 ‘이렇게’로 번역한 이유는 장성민, “마가복음에서 상위어(hyponym)로 쓰이는 λέγων의 현재 시제-형태 번역 제안”, 1-30을 보라.

28) 여기서 관련 용어들이 학문 영역이나 개별 학자마다 각기 다른 의미로 쓰이는 혼란스러운 상황을 지적해야 한다. 우선 통상 번역되지 않고 쓰이는 독일어 Aktionsart라는 개념은, 고대 그리스어 문법서들의 경우, 19세기 말엽을 거치면서 브루크만(K. Brugmann), 블라스(F. Blass) 등이 기존의 tense 개념을 대체하면서 동사의 핵심 의미로 내세운 개념이지만, 일반 언어학에서는 lexical aspect, predicate types, process types, situation aspect 등과 교호적으로 (때로는 혼동을 일으키며) 쓰인다. 본고는 신약성서 그리스어 연구사라는 맥락에서 Aktionsart를 aspect와 구별하여 화용론적 차원에서만 사용한다. 아울러 화자/저자의 관점을 표현하는 aspect와 관련하여서도, ‘동사상 이론’은 verbal aspect라는 용어를 선호하는 반면, 일반 언어학은 grammatical aspect라는 개념을 선호한다. H. von Siebenthal, *Ancient Greek Grammar for the Study of the New Testament*, 313(§194m), 각주 41 참조.

29) 아래에서 ‘활용’이라는 용어가 “무언가를 취지에 맞게 사용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시제, 태, 법, 인칭, 수 등에 따른 동사의 형태론적 변화를 지시할 때는 오해를 피하기 위해 ‘활용(conjugation)’처럼 우리말과 영어를 병기한다.

는 각각 ἐξήλαθεν, ἐπηρώτα, λέγων)가 아니라, 해당 시제-형태를 구성하는 핵심 요소인 ‘어간’(stem), 즉 어근에 중첩(reduplication)이나 시상 접미사(σ, κ) 등이 결합한 형태(위에서 예로 든 구절들의 경우는 각각 -ελοθ-[부정 어간], -έρωτα-[현재 어간], λεγ-[현재 어간])라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 적지 않은 문법서들이 동사의 시제-형태들을 설명하면서 흔히 이 사실을 간과하거나 시제-형태와 어간을 구분하지 않은 채 모호한 서술 방식을 취하는 탓에 자주 혼동이 야기되지만,³⁰⁾ 이는 동사 이해의 핵심이 Aktionsart에 있다고 보건,³¹⁾ 상에 있다고 보건³²⁾ 공통적이다. 다시 말해 특정한 시제-형태가 어떤 Aktionsart나 상을 표현한다고 주장할 때 그 형식적(형태론적) 근거는 그 시제-형태에 포함된 어간의 차이에 있지, 활용(conjugation)된 채 실제 본문에서 쓰이는 시제-형태의 차이에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보자면, 통상 ‘비완결상’(imperfective aspect)³³⁾으로 분류되는 현

30) 예컨대 시제가 동작의 시점과 절차적 특징(즉, Aktionsart)을 함께 표현한다고 서술하면서 동사 어간을 따로 분류해서 제시하지는 않는 W. W. Goodwin, *A Greek Grammar, Ancient Language Resources* (Eugene: Wipf & Stock, 2003[1892]), 268(§1249); E. D. E. Burton, *Syntax of the Moods and Tenses in New Testament Greek*, 3rd ed. (Edinburgh: T. & T. Clark, 1898), 6(§5) 등을 보라.

31) H. W. Smyth, *Greek Grammar* (Harvard University Press, 1920), 413-414(§1852): “모든 형태의 동사는 행위의 단계를 지시한다. a. 계속적인 동작은 현재 어간(present stem)에 의해 지시되며, … b. 완결되었으나 영구적인 결과를 지닌 동작은 완료 어간(perfect stem)에 의해 지시된다. … c. 단순히 발생한 동작은 1. 부정과거(aorist) … 2. 미래(future)에 의해 지시된다.”; C. F. D. Moule, *An Idiom Book of New Testament Greek*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54), 6: “… 동사의 어간은 Aktionsart(동작의 종류 — ‘선적’이든 ‘점적’이든)를 나타내는 반면, 발생 시점은 접미사와 접두사로 표현된다.”; BDF, 166(§318): “인도-유럽어들에서 이른바 동사의 시제 어간들(tense stems)이 지닌 본래 기능은 시점의 층위(현재, 과거, 미래)에 관한 것이 아니라 Aktionsarten(동작의 종류들) 또는 aspect(관점)에 관한 것이다.”

32) H. von Siebenthal, *Ancient Greek Grammar for the Study of the New Testament*, 306(§192g): “1. 현재/지속(durative), 부정(aorist), 그리고 완료(perfect) 어간들(stems)은 그 자체로 그 어떤 시제 가치(tense value)도 표현하지 않는다. … 2. 현재/지속, 부정과 완료 어간들은 기본적으로 상(aspect)만을 표현한다.”; E. van Emde Boas, et al., *The Cambridge Grammar of Classical Greek*, 405 (§33.6): “그리스어 동사의 시제-상 어간들(tense-aspect stems)은 세 가지 각기 다른 상적 가치(aspectual values)를 표현한다.”

33) ‘비완결상’은 ‘동사상 이론’과 관련된 논의에서 흔히 쓰이는 imperfective aspect를 번역한 것이다. 조어인 imperfective는 우리말로 ‘미완결적’, ‘미완료적’, ‘비완망적’ 등으로 번역되지만, 어떤 동작이나 사태(事態)가 ‘완료되지 않았음’(uncompleted)을 나타내다기보다 해당 동작이나 사태를 시점과 중점에 대한 언급 없이 내부적인 관점에서(internally) ‘온전하지 않게’(incomplete) 보여 주거나 묘사한다는 뜻에서 ‘비완결적’이다. 같은 맥락에서 ‘비완결상’과 짝을 이루는 perfective aspect 역시 ‘완결상’이라고 옮기는 것이 좋을 것이다. perfective는 우리말로 ‘완료적’, ‘완망적’ 따위로 번역되지만, 이 조어를 통해 전달하고자 하는 사태의 본질도 어떤 동작이나 사태의 ‘중결’, ‘완료’, ‘끝남’(completed)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자나 화자가 해당 동작이나 사태를 외부적인 관점에서(externally) 온전

재 시제-형태와 미완료 시제-형태 사이의 상적 가치(의미) 차이, 상의 가치에 있어서 논란이 되는 현재완료 시제-형태와 과거완료 시제-형태 사이의 상적 가치(의미) 차이가 무엇이나고 묻거나 상과 시간의 관계는 무엇이나고 묻는 것은 엄밀하지도 정교하지도 못하다. 현재 시제-형태와 미완료 시제-형태 또는 현재완료 시제-형태와 과거완료 시제-형태는 접두모음(augment) 유무, 중첩(reduplication) 여부, 가변 모음(thematic vowel) 유무, 인칭 어미(endings)의 변화 형식 등 활용(conjugation)되는 모양은 각기 다르지만, 형태론적으로 특정 어간, 즉 각각 현재 어간(현재 시제-형태와 미완료 시제-형태의 경우)과 완료 어간(현재완료 시제-형태와 과거완료 시제-형태의 경우)을 공유하며, 두 짝의 시제-형태들이 공유하는 어간의 상적 가치(aspectual value)는 - 그것이 무엇이든 - 동일하다고 봐야 하기 때문이다. 오히려 현재 시제-형태와 미완료 시제-형태의 (주로 시간적인 차원에서의) 의미 차이, 현재완료 시제-형태와 과거완료 시제-형태의 (주로 시간적인 차원에서의) 의미 차이는 어간이 아니라 접두 모음 유무와 인칭 어미의 차이에서 찾아야 한다.³⁴⁾ 하나의 시제-형태는 경우에 따라 중첩, 시상 접미사 등이

하게 시야에 넣고 ‘통째로’(as a whole) 바라보거나 제시하는 데에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이 용어들을 ‘완료적/미완료적’으로 읊기면, 전통적인 문법 용어인 ‘완료 시제’(perfect)와 ‘미완료 시제’(imperfect tense) 따위와 혼동을 불러일으킨다. 따라서 ‘완결적’이나 ‘비완결적’이나라는 관점의 차이를 나타내면서 전통적인 문법 용어들과도 변별하기 위해 imperfective aspect와 perfective aspect를 각각 ‘비완결상’, ‘완결상’으로 읊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B. Comrie, *Aspect: An Introduction to the Study of Verbal Aspect and Related Problem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76), 16-40; 김천학, “동사와 상에 관한 유형론적 연구: 한국어의 완망상과 비완망상에 대하여”, 『한국어학』 57 (2012), 179-206; 문숙영, “상 범주의 의미와 종류에 관한 몇 문제”, 『震檀學報』 120 (2014), 129-158, 특히 131-39; 박진호, “시제, 상, 양태”, 『國語學』 60 (2011), 289-322, 특히 303-308 등의 논의를 보라.

34) R. J. Allan, “Tense and Aspect in Classical Greek: Two Historical Development; Augment and Perfect”, S. E. Runge and C. J. Fresch, eds., *The Greek Verb Revisited*, 81-121; D. A. Black, *Linguistics for Students of New Testament Greek: A Survey of Basic Concepts and Applications*, 2nd ed. (Grand Rapids: Baker Books, 1995), 78, 81-82; D. J. Mastrorarde, *Introduction to Attic Greek*, 2nd ed. (London: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2013), 130; C. F. D. Moule, *An Idiom Book of New Testament Greek*, 6; A. T. Robertson, *A Grammar of the Greek New Testament in the Light of Historical Research* (Nashville: Broadman Press, 1935), 365, 825; H. von Siebenthal, *Ancient Greek Grammar for the Study of the New Testament*, 98-99; A. J. Köstenberger, et al., *Going Deeper with New Testament Greek*, 231-236 등. 단, 시제-형태의 상적 가치를 강조하면서 접두 모음이 시간 지시사(time indicator)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다. S. E. Porter, *Verbal Aspect in the Greek of the New Testament*, 75-109; S. E. Porter, *Idioms of the Greek New Testament*, 2nd ed., *Biblical Language 2: Greek*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1994), 20-28; K. L. McKay, *A New Syntax of the Verb in New Testament Greek: An Aspectual Approach*, *Studies in Biblical Greek 5* (New York: Peter Lang, 1994), 30; K. L. McKay, “Time and Aspect in New Testament Greek”, *NovT* 34 (1992),

포함되거나 포함되지 않는 어간을 통해 특정한 상적 가치를 표현하며, 동시에 접두 모음, 인칭 어미, 문맥 등에 따라 특정한 시제 가치(tense value)를 표현하기도 하는 것이다. 하지만 꽤 많은 문법서나 ‘동사상 이론’ 관련 글들이 마치 특정한 시제-형태 자체가 특정한 상을 표현하는 것처럼 서술하는 탓에 다소 혼란이 가중되는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특정한 어간에 ‘내재된 의미’가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다. 여기에서 ‘내재된 의미’(inherent meaning)는 어간에 새겨진(encoded) 문법적 요소가 다른 요소와의 관계 여하에도 불구하고 상시 표현하는 고유하고 불변하는 의미라는 뜻으로서, 어간 자체가 머금고 있는 내재적인 의미를 가리킨다. 이는 해당 단어가 지닌 ‘어휘적 의미’(lexical semantics)와 구별하여 ‘동사적 의미’(verbal semantics) 또는 ‘문법적 의미’(grammatical semantics)라고 부를 수도 있다.³⁵⁾ 지벤탈(H. von Siebenthal)에 따르면, 특정 어간에 내재된 의미는 다음과 같다.

“현재/지속 어간(present/durative stem), 부정 어간(aorist stem), 완료 어간(perfect stem)은 그 자체로 그 어떤 시제 가치도 표현하지 않으며, 기본적으로 오직 상적 가치만을 표현한다.”³⁶⁾

다시 말해 특정한 어간은 오로지 특정한 상적 가치만을 표현하며, 해당 어간에는 기본적인 어휘적 의미와 더불어 상적 가치가 내장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어간 자체는 시제 가치를 갖지 않으므로, 직설법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서법과 분사, 부정사 등이 그 자체로 ‘절대 시제’(absolute tense)를 표현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물론 모든 시제-형태들은 활용(conjugation) 과정에서 어간에 덧붙여지는 접두 모음, 인칭 어미, 그리고 해당 단어의 어휘적 의미와 문맥적 요소 등과 어우러지면서(상대적/절대적) 시제 가치와 동작의 종류를 동시에 표현한다. 하지만 ‘동사상 이론’에 따르면, 어간 자체가 머금고 있는 핵심 의미는 상적 가치이며 시제 가치와 동작

209-228; R. Decker, *Temporal Deixis of the Greek Verb*, 38-54; idem, *Reading Koine Greek*, 118, 각주 2 등을 보라. 물론 이들의 주장은 여전히 대다수의 문법학자들이 반대하는 소수 의견이다. 예컨대 C. R. Campbell, *Advances in the Study of Greek*, 111의 평가와 C. C. Caragounis, *The Development of Greek and the New Testament: Morphology, Syntax, Phonology, and Textual Transmission* (Grand Rapids: Baker Academic, 2006), 316-336의 신랄한 비판을 보라.

35) C. R. Campbell, *Basics of Verbal Aspect in Biblical Greek* (Grand Rapids: Zondervan, 2008), 22-23.

36) H. von Siebenthal, *Ancient Greek Grammar for the Study of the New Testament*, 306(§192g).

의 종류는 부수적 의미이거나 화용론적 결과일 뿐이다. 정리하자면, 특정한 어간은 저마다 다른 상적 가치를 내장하며 모든 동사 상당어(정동사, 분사, 부정사 등)는 이 어간을 중핵으로 삼아 특정한 시제-형태로 활용(conjugation)되므로, 그렇게 활용(conjugation)된 동사 상당어를 이해하는 핵심은 우선 그 동사 상당어가 가진 어간의 상적 가치에 있다. 이때 시제 가치는 접두 모음과 인칭 어미, 문맥, 장르, 시간 지시사 등에 의해 복합적으로 표현되며, 그렇게 활용(conjugation)된 시제-형태가 특정 텍스트에서 실제로 쓰이는 과정에 해당 단어의 어휘적 특성, 이러저러한 문맥적 요소 등이 서로 어우러지면서 일정한 *Aktionsart*가 현상적으로 표현된다고 할 수 있다.³⁷⁾

3.2. 화자/저자의 주관적 관점에서 상

그렇다면 ‘상’이란 무엇인가? 의외로 다수의 문법서들이 *Aktionsart*와 상을 엄밀하게 구별하지 않고 시제 관련 설명을 개진하지만,³⁸⁾ ‘동사상 이론’에 동조하는 학자들은 동사의 절차적 특징 또는 동작의 종류라고 할 수 있는 *Aktionsart*와 상을 엄격하게 구별할 뿐 아니라, 여타 세부적인 사안들과 달리 상의 개념에 있어서는 꽤 광범위한 합의를 보여 준다. ‘동사상 이론’에 입각하여 고대 그리스 동사의 시제-형태를 설명하는 학자들의 정의를 몇 가지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동사상(verbal aspect)은 화자나 저자가 동사 체계 내에서 특정한 시제-형태를 선별함으로써 어떤 동작에 대한 **관점(perspective)**을 문법화하는(즉, 단어-형태를 선택함으로써 의미를 나타내는) 의미론적 범주로 정의된다.”³⁹⁾

37) B. M. Fanning, *Verbal Aspect in New Testament Greek*, 95: “그런 의미들(즉, 각종 *Aktionsarten*[필자 추가])은 상의 정의로부터 도출되어서는 안 되며, 오히려 다른 요소들과 어우러진 이차적인 기능들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D. B. Wallace, *Greek Grammar beyond the Basics: An Exegetical Syntax of the New Testament* (Grand Rapids: Zondervan, 1996), 499: “대략 우리는 상(aspect)이 **영향을 받지 않는 의미(unaffected meaning)**라면, 동작의 종류(*Aktionsart*)는 어휘, 문법, 또는 문맥적 자질들과 어우러진 상(aspect in combination with lexical, grammatical, or contextual features)이라고 말할 수 있다”(강조는 원문의 것); C. R. Campbell, *Basics of Verbal Aspect in Biblical Greek*, 22-23: “의미론(semantics)이 동사 형태에 **새겨진(encoded)** 가치를 가리킨다면, ... 화용론(pragmatics)은 이 의미론적 가치가 문맥을 비롯한 여타 다른 요소들과 **어우러지면서 표현된 것을 가리킨다**”(강조는 추가한 것).

38) *BDF*, 166(§318); D. A. Mastrorarde, *Introduction to Attic Greek*, 163-166; A. T. Robertson, *A Grammar of the Greek New Testament*, 823 이하 등.

39) S. E. Porter, *Idioms of the Greek New Testament*, 20-21. 강조는 추가한 것이다.

“동사상(verbal aspect)은 어떤 동작이나 상태를 **바라보기 위해서(to view)** 동사가 사용되는 방식을 가리킨다.”⁴⁰⁾

“신약성서 그리스어에서 동사상(verbal aspect)은 동사가 묘사하는 동작이나 조건과 관련한 화자의 초점(focus)이나 **시점(viewpoint)**을 반영하는 동사의 문법 범주이다.”⁴¹⁾

“고대 그리스어에서 상이란 동사 체계의 범주로서, 저자(또는 화자)는 상이라는 수단을 통해 자신이 언급하는 개별 사건이나 활동을 그것이 사용되는 문맥과 관련하여 **어떻게 바라보는지(how he views)**를 보여 준다.”⁴²⁾

“동사의 상은 문법 범주로서 어떤 동사의 ‘동작’(action)이 시간 내에서 전개되는 것과 관련하여 화자/저자가 그것을 **바라보고(presents)** 제시하는 방식과 관련이 있다.”⁴³⁾

“(통상 단순히 ‘상’이라고 불리는) 문법적 상(grammatical aspect)은 특히 어떤 동작(action)의 내적인 구성(internal composition)과 관련하여 그것이 제시되고(presented) **간주되는(regarded)** 방식에 관심을 가진다.”⁴⁴⁾

위의 인용문들이 보여 주는 것처럼, ‘동사상 이론’이 말하는 ‘상’은 기본적으로 해당 동작이나 사태를 바라보는 화자/저자의 ‘관점’을 표현하는 문법 범주다. 이러한 이해는 다수의 학자들이 상 개념을 위해 참조하는 콤피리(B. Comrie)의 정의와도 크게 다르지 않다: “상은 어떤 상황의 내적인 시간 구성(internal temporal constituency)을 바라보는(viewing) 각기 다른 방식들이다.”⁴⁵⁾

위의 정의들에 따르면, 고대 그리스어 동사 상당어 시제-형태들은 시제나 동작의 종류가 아니라 우선 해당 동작이나 사태를 바라보는 화자/저자

40) C. R. Campbell, *Verbal Aspect, the Indicative Mood, and Narrative*, 1. 강조는 추가한 것이다.

41) B. M. Fanning, *Verbal Aspect in New Testament Greek*, 84. 강조는 추가한 것이다.

42) A. K. McKay, *A New Syntax of the Verb in New Testament Greek*, 27. 강조는 추가한 것이다.

43) H. von Siebenthal, *Ancient Greek Grammar for the Study of the New Testament*, 305(§192c). 강조는 추가한 것이다.

44) E. van Emde Boas, et al., *The Cambridge Grammar of Classical Greek*, 405(§33.4). 강조는 추가한 것이다.

45) B. Comrie, *Aspect*, 3. 강조는 추가한 것이며, 이는 콤피리(B. Comrie) 고유의 것이 아니라 J. Holt, *Étude d'aspect*, Acta Jutlandica 15:2 (Copenhagen: Munksgaard, 1943), 6의 정의에 기반한 것이다.

의 주관적 관점을 변별하여 표현한다. 예컨대 위에서 언급한 마가복음 8:27ab의 경우, 복음서의 화자/저자인 마가는 ‘나가다’(ἐξῆλθεν, 부정 어간)라는 동작과 ‘묻다/말하다’(ἐπηρώτα/λέγων, 현재 어간)라는 동작을 각기 다른 시제 어간으로 표현함으로써 관련 상황들을 각기 ‘다르게’ 보는 셈이다. 문맥상 하나의 일화에 포함되어 순서를 제외하면 시간적 차이를 따지기 어려운 동작들임에도 마가는 ‘나가다’라는 동작과 ‘묻다/말하다’라는 동작을 ‘다르게’ 보면서 둘 사이를 구별해서 표현한다. 따라서 청자나 독자들이 본문을 듣거나 읽으면서 이러한 관점의 차이에서 마가의 의식적 선택이나 모종의 문학적 의도를 감지하려 하거나 읽어 내려 시도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워 보인다. 실제로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객관적 재현(동작이나 사태가 실제로 전개되는 방식을 객관적으로 재현함)으로부터 주관적 묘사(동작이나 사태를 어떻게 보느냐를 주관적으로 묘사함)로의 전회(轉回)를 말하기도 하고,⁴⁶⁾ 담론 내의 상대적 두드러짐(prominence/salience) 차이나 주제상의 위계를 다소 과장하기도 한다.⁴⁷⁾

하지만 사정은 그리 단순하지 않다. 사정의 복잡성은 주로 해당 동작이나 사태를 바라보는 화자/저자의 주관적 관점을 선택하는 절차가 온전히 저자의 몫이 아니라는 사실에 기인한다. 오히려 화자/저자가 특정한 어간을 포함하는 시제-형태를 선택하거나 활용하는 과정에는 해당 동사의 어휘적 특성, 문맥적 요소, 구문론적 요소, 심지어 관행(convention) 등의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특히 동사 자체의 어휘적 특성상 화자/저자가 불가피하게 특정한 어간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적지 않다. 심지어 εἶμι(to be[2462회]), κεῖμαι(to lie, recline[24회]), κάθημαι(to sit[91회]), φημί(to say, affirm)[66회] 등은 어휘가 지닌 본연의 의미나 관용적 영향 탓에 신약성서에서는 부정과거 시제-형태로 전혀 쓰이지 않는다.⁴⁸⁾ 물론 대부분의 동사는 특정한 시제-형태에 국한되지 않고 두루 쓰이지만, 해당 동사가 지닌 내재적 의미에 따라 분명 특정한 시제-형태를 선호하는 경향이 나타나는 것도 엄연한 사실이다. 예컨대 문맥 등의 조건을 차치한다면,⁴⁹⁾ 절정, 결말,

46) 예컨대, R. E. Picirilli, “The Meaning of the Tenses in New Testament Greek”, 537; S. E. Porter, “Linguistics and Biblical Interpretation”, idem, *Linguistic Analysis of the Greek New Testament: Studies in Tools, Methods, and Practice* (Grand Rapids: Baker Academic, 2015), 83-92, 특히 86.

47) 예컨대, S. E. Porter, *Idioms of the Greek New Testament*, 21-24의 단호하고 명쾌한 설명을 보라.

48) A. J. Köstenberger, et al., *Going Deeper with New Testament Greek*, 238.

49) E. van Emde Boas, et al., *The Cambridge Grammar of Classical Greek*, 408-409(§33.8, §33.9); C. J. Thompson, “What is Aspect?: Contrasting Definitions in General Linguistics and New

종결 등을 함의하지만 지속의 의미는 전달하지 않는 일부 종결상 동사들 (telic verbs)의 경우, 동사 자체의 어휘적 특성상 자연스러운 종결점을 갖는 까닭에 실제로 미종결상 동사들(atelic verbs)에 비해 부정과거 시제-형태를 선호하는 경향을 보인다.⁵⁰⁾ 이와는 달리 자연스러운 종결점보다는 상태, 지속 등을 표현하는 일부 미종결상 동사들은 부정과거 시제-형태보다는 현재나 미완료 시제-형태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⁵¹⁾ 이와 같은 경향은 해당 동사의 어휘적 특성이 점적(punctual)이나 지속적(durative)이나, 일정한 상태(state)를 표현하느냐 동적 상황(dynamic situation)을 나타내느냐에 따라 서로 얼마든지 생겨날 수 있다.

또한 서술하고자 하는 사태나 구문의 특징 등 문맥이나 구문론적 요소 등에 의해 시제-형태가 결정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달리다’(to run)라는 뜻의 *τρέχω*는 달리기의 목적지나 대상 등이 명시되느냐 여부에 따라 동작의 성격이 달라진다. 목적지나 목표, 대상 등을 향해 달리는 행위를 표현할 때는 동작의 자연스러운 종결점을 내포하는 종결상 동사로 쓰이지만, 특정한 방향이나 목표 없이 그냥 달리는 행위를 나타낼 때는 특별한 종결점이 없는 미종결상 동사로 쓰이는 것이다. 아래의 예들을 비교해 보자.

Καὶ ἰδὼν τὸν Ἰησοῦν ἀπὸ μακρόθεν ἔδραμεν καὶ προσεκύνησεν αὐτῷ(막 5:6)
 ‘그리고 그는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가 그에게 경배했다.’

Ἐτρέχετε καλῶς· τίς ὑμᾶς ἐνέκοψεν;(갈 5:7)
 ‘여러분은 잘 달려왔습니다. 누가 여러분을 방해했습니까?’

ἔτρεχον δὲ οἱ δύο ὁμοῦ· καὶ ὁ ἄλλος μαθητὴς προέδραμεν τάχιον τοῦ Πέτρου καὶ ἦλθεν πρῶτος εἰς τὸ νημεῖον(요 20:4)
 ‘둘이 함께 뛰었다. 그러나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빨리 앞서 달려서 먼저 무덤에 이르렀다.’

앞의 두 예에서 보듯이, 달리기의 대상이 명시된 마가복음 5:6은 부정과거 시제-형태(*ἔδραμεν*)를 사용했지만, 이와 달리 달리기의 목적이나 대상이

Testament Studies”, S. E. Runge and C. J. Fresch, eds., *The Greek Verb Revisited*, 13-80; B. M. Fanning, *Verbal Aspect in New Testament Greek*, 126-196의 상세한 설명을 보라.

50) 내가 무작위로 확인한 바에 따르면, 여기에 속하는 *ἀγοράζω*(to buy[30회])는 6회, *βάλλω*(to throw[122회])는 23회, 그리고 *εὕρισκω*(to find[176회])는 24회, *πίπτω*(to fall[90회])는 9회를 제외하면 항상 부정과거 시제-형태(분사 포함)로만 쓰인다.

51) 내가 무작위로 확인한 바에 따르면, 여기에 속하는 *ἀσθενέω*(to be sick[33회])는 6회(1회는 현재완료 시제-형태[고후 11:21]), *μισέω*(to hate[40회])는 6회(2회는 완료 시제-형태[요 15:42; 계 18:2])를 제외하고 모두 현재(분사 포함)나 미완료 시제-형태로 사용되며, *οἰκέω*(to dwell[9회])는 전부 현재 시제-형태로만 쓰인다.

명시되지 않은 갈라디아서 5:7은 미완료 시제-형태(ἐτρέχετε)를 사용하였다. 특히 요한복음 20:4는 비록 사용된 동사는 다르지만(τρέχω/προτρέχω) 달리기 목적지 여부에 따라 같은 구절 내에서 각기 다른 시제-형태를 사용했다(ἔτρεχον[미완료 시제-형태]/προέδραμεν[부정과거 시제-형태]). 이러한 차이는 화자/저자가 해당 동작을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에 따른 의식적 선택의 결과로 설명하기보다, 동작이 이루어지는 상황의 차이에 따라 이를 적절하게 묘사하기 위해 한 경우에는 종결상 동사가, 다른 한 경우에는 미종결상 동사가 사용되었다고 보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⁵²⁾

따라서 상(aspect)이 특정한 시제-형태가 표현하는 기본적인 의미를 이해하는 데 중심이 된다는 점을 인정하더라도, 이를 기계적으로 적용하거나 무조건 저자의 의식적인 선택의 문제로 강조할 필요는 없다. 오히려 고대 그리스어 동사의 시제-형태를 해석하는 과정은 상을 비롯하여 해당 동사의 어휘적 특성, 묘사되는 사태의 특징, 구문론적 요소, 문맥 등 다양한 요소들을 종합적이고 균형 있게 고려하는 세심한 작업을 요구한다. 무엇보다 의사소통이나 글쓰기는 흔히 의식적 선택보다는 관습이나 관행에 따라 이루어지는 경우가 허다하므로, 오히려 본문에 나타나는 특정한 시제-형태가 통례를 벗어난 형식인지를 면밀하게 살피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⁵³⁾

3.3. 관점의 종류

그렇다면 상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가? 다시 말해 화자/저자는 자신이 묘사하려는 동작이나 사태를 어떻게 ‘다르게’ 보는가? 우선 상이 두드러지는 언어들(aspect-prominent languages)에서는 대체로 ‘완결상’(perfective aspect)과 ‘비완결상’(imperfective aspect)이 구별되어 사용된다는 점에 있어서 대다수 학자가 동의한다.⁵⁴⁾ 널리 인정되듯이, 고대 그리스어의 경우 완결상은 부정과거 시제-형태로, 비완결상은 현재 시제-형태나 미완료 시제-형태로 표현된다.⁵⁵⁾ 완결상과 비완결상이 정확히 무엇을 지칭하느냐에 있어서

52) 이 외에도 법이나 일부 관용구, 특정 장르에서 특정한 시제-형태를 선호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이는 직설법만을 다루는 본고의 범위를 넘어서며, 직설법 이외의 서법을 다룰 예정인 후속 연구에서 상세하게 다루도록 하겠다. 관련 예들을 위해서는 A. J. Köstenberger, et al., *Going Deeper with New Testament Greek*, 239-241을 보라.

53) Ibid., 243.

54) B. Comrie, *Aspect*, 16-40.

55) E. van Emde Boas, et al., *The Cambridge Grammar of Classical Greek*, 406(§33.6); A. J. Köstenberger, et al., *Going Deeper with New Testament Greek*, 232-234; C. R. Campbell,

는 학자마다 미묘한 의견 차이를 보임에도, 완결상이 ‘외부적인 관점’(from the outside)을 표현하고 비완결상이 ‘내부적인 관점’(from within)을 표현한다는 점에 있어서도 별다른 이견이 없다. 말하자면, 완결상이 화자/저자가 해당 동작이나 사태를 그것이 전개되는 특정 국면을 따로 부각하지 않은 채 외부에서 ‘온전한 전체로’(as a complete whole) 바라보며 언급하는 것이 라면, 비완결상은 화자/저자가 해당 동작이나 사태를 내부에서 바라보면서 진행이나 지속, 반복 등 그것이 전개되는 국면의 특정한 성격을 부각하는 방식으로 언급하거나 묘사하는 것이다.⁵⁶⁾ 위에서 언급한 바 있는 τρέχω 동사의 쓰임을 예로 들어 설명해 보자.

ἀνεθέμην αὐτοῖς τὸ εὐαγγέλιον ὃ κηρύσσω ἐν τοῖς ἔθνεσιν, κατ’
 ἰδίαν δὲ τοῖς δοκοῦσιν, μή πως εἰς κενὸν τρέχω ἢ ἔδραμον.(갈 2:2)

‘나는 내가 이방인들에게 전하고 있는 복음을 그들에게 설명하였고, 명망 있는 자들에게는 따로 (그렇게 하였습니다). 내가 헛되이 달리거나 (이제껏) 헛되이 달린 것이 되지 않도록 말입니다.’

위의 예에서 바울은 τρέχω라는 비완결상 시제-형태([가정법] 현재)를 활용하여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상황을 내부적인 관점에서 지속적인 동작으로 묘사하는 반면, 이제까지 복음을 전해 온 경과 전체는 ἔδραμον이라는 완결상 시제-형태([직설법] 부정과거)를 활용하여 외부적인 관점에서 ‘통째로’(in totality) 언급한다.⁵⁷⁾ 다시 말해 바울은 이 구절에서 ‘과거’에도 달렸고 ‘지금’도 달리고 있다거나(시제 중심), ‘일회적’으로 달렸고 ‘지속적’으로 달리고 있다(동작의 종류 중심)는 식으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자신의 복음을 설명하던 당시 지속하던 복음 선포 행위는 내부적인 관점에서 실질적 수행(마치 현장에 있는 듯)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그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기 이전의 선교 사역은 마치 한 덩어리처럼 (자전적 회고의 관점에서) ‘온전한 전체’로 언급하는 것이다(상 중심).

이런 식의 구별은 흔히 ‘거리감’(remoteness)으로 설명되곤 한다.⁵⁸⁾ 특히

Basics of Verbal Aspect in Biblical Greek, 34-45 등.

56) H. von Siebenthal, *Ancient Greek Grammar for the Study of the New Testament*, 305(§192c).

57) 바울은 우리를 표현하기 위해 μή πως 구문을 활용할 때 거의 배타적으로 부정과거 가정법을 사용한다(고전 8:9; 9:27; 고후 2:7; 9:4; 11:3; 12:20; 살전 3:5 등). 이미 일어난 일을 언급하는 갈 4:11(현재완료 직설법)을 제외하면 갈 2:2는 유일한 예외이며, 이로 보건대 바울이 이 구절에서 의도적으로 비완결상을 활용했다고 추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BDF*, 188(§370).

58) C. R. Campbell, *Basics of Verbal Aspect in Biblical Greek*, 37-38; S. E. Porter, *Idioms of the*

‘거리감’이라는 공간적 은유는 시제-형태가 시제나 동작의 종류가 아니라 상적 가치를 (배타적으로) 표현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맥락에서 종종 호출된다. 하지만 기실 이와 같은 공간적 차원의 설명은 포터(S. E. Porter)가 임의로 개작한 러시아 언어학자 이사첸코(Isačenko)의 행진(parade) 비유에 적지 않은 영향을 받았다. 포터는 상으로 표현되는 화자/저자의 관점을 다음과 같이 시각화한다.

“행진과의 유비가 사뭇 유용하다. 만일 내가 행진 상공을 날고 있는 텔레비전 기자라면, 나는 즉각적으로 그 행진을 외부라는 유리한 관점에서 ‘완결적으로’(perfective) 본다; 다시 말해 하나의 온전한 전체로 통째(in its entirety) 보는 것이다. 만일 내가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길가에서 관람객의 한 사람으로 서서 행진 행렬이 내 앞으로 지나가는 것을 본다면, 나는 그 동작을 거기에 몰입된 채 ‘비완결적으로’(imperfective) 본다; 다시 말해 진행 중인(in progress) 이벤트로 보는 것이다.”⁵⁹⁾

이 비유에서 대비되는 차원은 공간적 거리감으로서, ‘멀리에서’ 또는 ‘외부에서’ 전체를 조망하느냐(완결상), ‘가까이에서’ 또는 ‘내부에서’ 일부를 조망하느냐(비완결상)의 차이이다. 이와 같은 시각화는 분명 시간적, 공간적, 정서적, 주제적 거리감을 포괄하는 장점이 있다. 특히 서사문에서 완결상인 부정과거 시제-형태로 기본적인 서사를 전개하다가 특정 국면에서 미완료나 현재 시제-형태를 사용하면, 마치 카메라를 줌-아웃(zoom-out) 한 상태에서 전체 광경을 보여 주다가 줌-인(zoom-in)하여 특정한 장면을 더 생생하게 묘사하는 느낌을 주는 것이 사실이다.⁶⁰⁾ 예를 들어 예수의 수세 장면을 살펴보자.

ἦλθεν Ἰησοῦς … καὶ ἐβαπτίσθη … καὶ εὐθὺς … εἶδεν … καὶ φωνὴ ἐγένετο ἐκ τῶν οὐρανῶν. Καὶ εὐθὺς τὸ πνεῦμα αὐτὸν ἐκβάλλει εἰς τὴν ἔρημον.(막 1:9-12)

‘예수가 와서 … 세례를 받았다 … 그리고 즉시 보았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었다. 그리고 즉시 성령이 그를 광야로 내몰았다.’

이 단락은 수세 장면에서 부정과거 시제-형태가 연이어 쓰이다가 이어지는 장면에서 ἐκβάλλει라는 현재 시제-형태(이른바 ‘역사적 현재’)가 사용된

Greek New Testament, 23 등을 보라.

59) S. E. Porter, *Idioms of the Greek New Testament*, 24.

60) *Ibid.*, 23.

다. 시제-형태별로 달리 표현되는 완결성과 비완결성에 익숙한 청자나 독자는 이와 같은 변화를 통해 수세 장면에 비해 예수가 광야로 내몰리는 장면을 더욱 ‘가까이에서’ 생생하게 느낄 수 있다. 행진 비유에 빗대자면, 마치 헬리콥터를 타고 예수의 수세 장면을 멀리서 조망하다가 세례를 마치고 광야로 내몰리는 장면에 이르러서는 현장에 직접 내려가서 예수의 이동 경로를 근거리에서 추적하는 듯한 느낌을 받는 것이다.

하지만 이사첸코가 제시한 비유의 본래 강조점과 시각은 이와 조금 다르다.⁶¹⁾ 이사첸코는 ‘다시 쓰다’(to rewrite)와 ‘읽다’(to read)라는 동사를 예로 들면서 비완결상 동사 형태(*on perepisival[he was rewriting]/on čital[he was reading]*)는 행진 참여자로 현장에서 함께 걷는 것과 유비를 이루는 데 반해, 완결상 동사 형태(*on perepisal[he rewrote]/on pročitál[he read]*)는 단상 위에서 행진 광경을 바라보는 것과 유비를 이룬다고 설명한다. 전자가 사건의 시점이나 종점을 보지 못한다는 뜻에서 그 사건 전체를 온전히 경험하지 못하는 데 비해, 후자는 사건의 외부에 서서 해당 사건을 처음부터 끝까지 전체로 경험한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 유비가 공간상의 거리감을 강조하기 보다, 시점이나 종점에 대한 언급 없이 사건이 전개되는 과정의 ‘내적인 시간 구성’(internal temporal constituency)에 주목하느냐 아니면 시점부터 종점까지 해당 사건이 전개되는 시간의 전체 범위(whole time-span)를 포괄하느냐의 차이를 강조한다는 점이다.

‘동사상 이론’에 동조하는 일부 학자들은 시제 가치를 배면으로 밀어내고 상적 가치를 전면으로 내세우느라 상 개념을 설명하면서 흔히 ‘거리감’을 강조하곤 하지만, 실제로 앞서 인용한 상의 정의들 가운데 콤리, 지벤탐, 보아스(E. van Emde Boas) 등의 것은 동작이나 사태가 전개되는 시간적 차원을 상 정의에 분명하게 포함한다. 말하자면 어떤 동작이나 사태를 완결적으로 보느냐 비완결적으로 보느냐에서, 방점은 공간적 ‘거리감’의 차이가 아니라 해당 동작이나 사태가 전개되는 과정에 불가결한 요소인 ‘내적인 시간 구성’을 보는 시각의 차이에 찍혀 있는 것이다.⁶²⁾ 상이 분명 어떤 동작이나 사태를 바라보는 화자/저자의 관점을 변별적으로 표현하기는 하지만, 그 관점의 대상이란 다름 아니라 해당 동작이나 사태가 전개되는 ‘시공간’(spacetime)이며 어떤 시공간이든 내적인 시간 구성은 불가결한 요소

61) 비유의 출처: A. V. Isačenko, *Grammaticeskij stroj russkogo jazyka v sopostavlenii c slavackim: Morfologija*, part 2 (Bratislava: Slovak Academy of Sciences, 1960), 133. 실제 비유의 내용은 C. J. Thompson, “What is Aspect?”, S. E. Runge and C. J. Fresch, eds., *The Greek Verb Revisited*, 21-22의 설명을 참조하였다.

62) B. Comrie, *Aspect*, 3.

다.⁶³⁾

따라서 일부 학자들의 도발적 주장과 달리, 상적 가치를 강조하느라 시제 가치를 부러 배제할 이유는 전혀 없다. 무엇보다 실제 활용(conjugation)된 시제-형태는 상적 가치를 머금은 특정 어간에 시제 가치를 표현하는 요소들이 조합된 형태이므로, 형태론적으로 보더라도 상적 가치만을 배타적으로 강조하는 것은 옳지 않다. 아울러 관점의 대상이 동작이나 사태의 내적인 시간 구성이라는 점을 기억하면, 전통적 개념인 *Aktionsart*도 주관적이냐 객관적이냐에 따라 상과 서로 배척되는 개념이 아니라 상의 선택에 따른 저자의 관점 차이가 특정 문맥 안에서 자연스럽게 구현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저자가 바라보려는 관점에 따라 내적인 시간 구성에 주목하면 어떤 동작이나 사태가 ‘선적으로’(즉, 진행적이거나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경험될 수도 있고, 내적인 시간 구성과 무관하게 외부에서 보면 같은 동작이나 사태라 하더라도 시점과 중점을 포괄하는 전개 과정 전체가 ‘점적으로’(말 그대로 ‘무규정적으로!’[aorist]) 경험될 수도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자면 이미 한 세기 전에 로버트슨(A. T. Robertson)이 제시한 다음과 같은 고전적 설명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아마도 화자나 저자의 관점(the point of view)에 관해 좀 더 침언해야 할 것 같다. 같은 동작이 점적(punctiliar)으로 보일 수도 있고 선적(linear)으로 보일 수도 있다. 같은 저자가 그것을 한때 이런 식으로 보다가 다른 때에는 저런 식으로 보기도 한다. 각기 다른 저자들은 같은 동작을 제시하면서도 흔히 차이를 보인다.”⁶⁴⁾

그러므로 특정한 시제-형태를 이해하는 과정에 그 시제-형태에 포함된 어간이 변별적으로 표현하는 상적 가치가 주된 역할을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실제 해석이나 번역 과정에서 시제 가치나 문맥에서 파악되는 동작의 종류를 부러 물리친 채 상적 가치만을 강조하는 것은 능사가 아니다. 오히려 상적 가치를 내장한 어간이라는 ‘원 등치’(본질)가 아니라 그것에서 뻗

63) C. J. Thompson, “What is Aspect?”, 21-24. 이런 맥락에서 오충연은 상을 “정해진 시간의 구역(temporal area[時域])에서 대상의 변화를 드러내는 사차원성을 띤 기제”라고 규정하면서, “상은 시간과 공간이 비분리적인 물리적 실재를 일컫는 술어인 ‘시공간’(spacetime)이 그대로 언어적 형식으로 표현된 것이다. 시공간을 일상적인 말로 바꾸면 곧 ‘상황’(狀況[situation])이다”라고 설명한다. 오충연, 『상과 통사 구조』(서울: 대학사, 2006), 13-14.

64) A. T. Robertson, *A Grammar of the Greek New Testament*, 1380. 물론 로버트슨(A. T. Robertson)은 *Aktionsart*를 최근의 ‘동사상 이론’에서 말하는 aspect처럼 사용하는 뜻에 혼동을 야기하곤 한다.

어 나와 이러저러하게 활용(conjugation)된 텍스트 내의 실제 시제-형태라는 ‘가지’(현상)에 국한하면, 해당 텍스트에서 구현되는 실질적인 의미는 시제-형태로 표현되는 시제 가치와 어간과 여러 문맥적 요소가 어우러진 결과인 동작의 종류뿐이라고 해야 할지도 모른다. 다수의 문법서가 상적 가치를 화자/저자의 관점을 표현한 것이라고 규정하면서도 실제로 해당 상의 용법들을 상술하면서도 기존의 *Aktionsarten* 범주를 활용하여 전통적인 설명을 반복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⁶⁵⁾

특히 이와 같은 현상학적 접근은 우리말 번역 과정에 맞닥뜨리는 가장 큰 난점을 상당 부분 해소한다. 시제 가치가 두드러지는 언어인 우리말에서 시제 자체로 완결상이나 비완결상을 표현하기는 불가능하며, 결국 상적 가치 차이를 우리말 시제로 구현할 마땅한 방법이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우리말 시제는 기본적으로 시제 가치를 나타내며, 여기에 상적 가치가 문맥 등을 통해 결과적으로 구현된 동작의 종류를 연결어미와 보조동사의 결합, 의존 명사 구성 등의 방식으로 곁들여 표현할 수 있을 따름이다.⁶⁶⁾ 위에서 예로 든 갈라디아서 2:2를 다시 보자.

μή πως εἰς κενὸν τρέχω ἢ ἔδραμον.(갈 2:2하)

‘내가 헛되이 **달리거나** (이제껏) 헛되이 **달린** 것이 되지 않도록 말입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바울이 이 구절에서 비완결상과 완결상을 구별해서 사용한 이유는 상적 가치를 달리 표현하기 위해서다. 고대 그리스어의 경우 상적 가치가 어간에 내장되어 있으므로 ‘달리기’하는 동작이나 사태를 완결적으로 보느냐 비완결적으로 보느냐를 시제-형태 자체로 구별하여 표현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말의 경우 특정 시제만으로는 바울이 예루살렘 방문 시점에 여전히 ‘달리던’(즉, 복음을 전파하던) 상황을 비완결적으로 표현하거나, 예루살렘을 방문하기 이전에 일정 기간 ‘달려온’(즉, 복음을 전파해 온) 사역의 경과 전체를 완결적으로 표현할 수 없다. 오히려 위의 번역에서처럼 완결상의 경우 시간의 경과 전체를 표현하는 부사인 ‘이제껏’과

65) 예컨대, E. van Emde Boas, et al., *The Cambridge Grammar of Classical Greek*, 412-19(§33.14-33); H. von Siebenthal, *Ancient Greek Grammar for the Study of the New Testament*, 308-10(§194a-d).

66) 남기심, 고영근, 『표준국어 문법론』(서울: 탐출판사, 2011), 325; 구분관 외, 『한국어 문법 총론 I』(서울: 집문당, 2015), 318. 예컨대 “철수가 의자에 앉아 있다”의 경우 “앉는 일이 끝나서 그 결과가 지속되는” 완료상을 표현하는데, 이를 위해서 ‘있다’라는 동사에 연결어미 ‘-아’와 보조동사 ‘있다’를 결합했다.

달려온 행위 자체를 명사화한 의존 명사 ‘~것’ 등을 결합하여 ‘(이제껏) 달린 것’ 따위로 번역하거나, 비완결상의 경우 그저 ‘달리거나’라고만 번역한 후 원문에는 지속적인 의미가 담겨 있다는 식으로 부연해야 한다.

이렇듯 결과적으로 우리말 번역에는 상적 가치보다는 주로 시제 가치와 동작의 종류의 차이만 구현되는데, 그렇다고 이를 두고 두 언어 사이의 차이를 강조하면서 고대 그리스어의 상적 가치가 우리말로 좀체 구현되지 않는다고 불평만 할 일은 전혀 아니다. 전술했듯이, 활용(conjugation)된 실제 시제-형태는 상적 가치를 내장하고 있지만 이러저러한 문맥적인 요소들과 어우러지면서 결과적으로는 시제 가치와 동작의 종류를 표현하게 되며, 이는 우리말로도 제법 온전하게 그려낼 수 있다. 그러니 그때그때 상적 가치에 근거하여 문맥상 구현된 동작의 종류를 파악한 후, 이를 맥락상의 시제 가치와 잘 버무려 적절한 우리말로 옮기는 섬세함을 발휘하면 될 일이다.

다음으로 완료 어간이 표현하는 상적 가치가 무엇인지를 간략하게 살펴보자. 완결상과 비완결상 사이의 구별이 보편적 합의에 이른 것과는 달리, 완료 어간이 표현하는 상적 가치에 대해서는 여전히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⁶⁷⁾ 물론 어간의 형태(중첩+시상 접미어)가 다르다는 점에서 완료 어간이 현재 어간이나 부정 어간과 동일한 상적 가치를 표현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지면 관계상 관련 논의를 상세하게 다루고 평가를 제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⁶⁸⁾ 다만 나는 완료 어간이 ‘상태적 상황’(stative situation)을 강조하는 동작의 종류 차원의 특징과 ‘선행성’(anteriority)을 강조하는 시제 가치, 그리고 ‘요약적 관점’(summary viewpoint)을 강조하는 상적 가치를 복합적으로 표현한다는 패닝의 입장에 대체로 동조한다는 점만 밝혀 두겠다.⁶⁹⁾ 고대 그리스어에서 완료 시제는 발화 시점을 기준으로 이전에 완결된 동작이나 사태의 결과가 발화 시점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표현하는 시제-형태로서, 해당 동작이나 사태를 완결적으로 본다는 점

67) C. R. Campbell, *Basics of Verbal Aspect in Biblical Greek*, 46-52([강화된 근접성을 내포한 비완결상[imperfective with heightened proximity]); B. M. Fanning, *Verbal Aspect in New Testament Greek*, 84-125, 특히 119(복합적 범주[complex verbal category]); A. K. McKay, *A New Syntax of the Verb in New Testament Greek*, 31-32(상태상[stative aspect]); S. E. Porter, *Idioms of the Greek New Testament*, 21-22, 29-42(상태상[stative aspect]); H. von Siebenthal, *Ancient Greek Grammar for the Study of the New Testament*, 313(§194k)(결과상[resultative aspect]) 등.

68) 이는 별도의 논문이 필요한 복잡하고 논쟁적인 분야이며, 후속 연구로 미뤄두겠다.

69) B. M. Fanning, *Verbal Aspect in New Testament Greek*, 119. 단, 상적 가치로 보자면 나는 완료 어간이 이전의 동작이나 사태가 완결된 ‘상태’뿐 아니라 그것의 ‘결과’도 함께 강조한다고 본다. H. von Siebenthal, *Ancient Greek Grammar for the Study of the New Testament*, 313(§194k)을 보라.

에서는 완결상에 가깝지만 발화 시점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점에서는 비완결상과 유사하다.⁷⁰⁾ 물론 완료 시제-형태가 지닌 이러한 복합적 특징들은 개별 텍스트에 따라 각기 다른 정도로 부각된다. 이 입장은 완료 어간이 표현하는 상적 가치를 특정한 범주에 제한하지 않으면서도 완결상 및 비완결상과 절묘하게 구별하는 장점이 있다. 나는 이와 같은 복합적 이해가 상태나 강화된 근접성만을 강조하는 포터나 캠벨(C. R. Campbell) 등의 설명보다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에 대한 상세한 논의는 지면 관계상 후속 연구로 미뤄두겠다.

3.4. 담론 구성에서의 역할

마지막으로 ‘동사상 이론’은 시제-형태가 지닌 상적 가치 차이에 근거하여, 특정 종류의 담론 구성에 있어서는 상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주장한다. 관련 논의에서 흔히 인용되는 롱에이커(R. E. Longacre)의 재치 있는 묘사에서 시작해 보자.

“담론의 모든 부분이 동일하게 두드러져 있다면 결국 극도의 난해함만 남게 된다. 그 결과는 검정 종이 한 장을 들이대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이것은 검정 낙타가 깜깜한 밤에 검은 사막을 건너 가는 그림이다.’”⁷¹⁾

롱에이커가 묘사했듯이 서사와 비-서사를 막론하고 모든 텍스트는 나름대로 입체감(두드러짐의 차이)을 가져야 한다. 이러한 입체감이 아무런 두드러짐 없이 정보를 나열할 때 발생하는 따분함과 밋밋함을 방지하고 특정한 정보를 활성화하여 독자가 저자의 논리와 취지를 따라갈 수 있게 해주기 때문이다. ‘동사상 이론’에 동조하는 학자들은 마치 서양장기(chess)에서 퀸(queen)이나 킹(king), 비숍(bishop)이나 나이트(knight)의 역할과 무게감이 장기판이라는 맥락 탓에 상대적 차이를 보이듯, 이 시제-형태들 간의 상대적 역할 차이가 서사 내의 두드러짐 정도를 파악하는 열쇠가 된다고 주장한다. 리드(J. T. Reed)와 리즈(R. A. Reese)에 따르면, 본문 내의 ‘두드

70) A. J. Köstenberger, et al., *Going Deeper with New Testament Greek*, 233. 그런 의미에서 현재 완료 시제-형태의 시제 가치는 ‘현재’다. 형태론적으로도 현재완료 시제-형태는 접두모음을 갖지 않으며, 1차 시제의 인칭 어미를 활용한다. E. van Emde Boas, et al., *The Cambridge Grammar of Classical Greek*, 421(\$33.35), note 1.

71) R. E. Longacre, “Discourses Peak as Zone of Turbulence”, J. R. Wirth, ed., *Beyond the Sentence: Discourse and Sentential Form* (Ann Arbor: Karona, 1985), 83.

러짐’(prominence[현저성])이란 “화자/저자가 본문 내의 중요한 주제나 모티프에 청자/독자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수단”을 일컫는데,⁷²⁾ 일부 학자들은 고대 그리스어에서 상적 가치가 이러한 두드러짐을 표현하는 중요한 수단들 가운데 하나라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포터는 담론 내에서 부정과거 시제-형태는 배경(background)을, 현재 시제-형태는 전경(foreground)을, 완료 시제-형태는 최전경(frontground)을 각각 나타냄으로써 일정한 층위를 형성한다고 주장한다.⁷³⁾ 화자/저자는 부정과거 시제-형태를 서사 진행의 열개를 표현하는 기본 설정 시제-형태(default tense-form)로 삼아 서사를 전개하다가, 중요한 등장인물을 도입하거나 특정 국면의 절정을 표현하고자 할 때는 현재 사제-형태를, 특정 요소를 더 구별되고 명확히 구획된 방식으로 도입하고자 할 때는 완료 시제-형태를 각각 활용한다는 것이다. 이와 달리 켐벨은 ‘거리감’의 차이를 강조하면서 시제-형태가 서사 내에서 각기 다르게 쓰이는 방식을 설명한다. 켐벨에 따르면 가장 거리감이 먼 부정과거 시제-형태는 “어떤 동작을 새의 눈으로 바라보는 듯한 조망을 제시하면서 그 동작을 요약적으로 묘사하므로, 흔히 서사의 뼈대가 되는 구조를 개괄하는 데 쓰인다.”⁷⁴⁾ 반면 부정과거 시제-형태에 비해 상대적으로 거리감이 가까운 현재 시제-형태는 “담론(discourse)에서 가장 자주 나타난다... 서사 내에서 담론이 묘사될 때마다 현재 시제-형태는 독자들이 이야기로 몰입하도록 만드는 효과를 내면서 마치 해당 담론이 독자들의 눈앞에서 벌어지는 것처럼 제시한다.”⁷⁵⁾

이렇듯 학자들의 설명 방식이나 각 시제-형태에 할당하는 역할에 다소 차이가 있지만, 고대 그리스어 텍스트 내에서 각 시제-형태가 쓰이는 방식을 변별할 수 있고 이는 주로 상대적인 두드러짐의 차이로 나타난다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 서사문의 경우 완결상인 부정과거 시제-형태가

72) J. T. Reed and R. A. Reese, “Verbal Aspect, Discourse Prominence, and the Letter of Jude”, *Filologia Neotestamentaria* 9 (1996), 186. 두드러짐을 표현하는 수단은 어순, 강세, 억양, 특정 단어, 화법, 수사적 의문문, 각종 지시사, 담론의 길이 등 다양하다. A. J. Köstenberger, et al., *Going Deeper with New Testament Greek*, 466; S. E. Runge, *Discourse Grammar of the Greek New Testament: A Practical Introduction for Teaching and Exegesis* (Peabody: Hendrickson Publishers, 2010), passim; 박운만, “신약성서 헬라어의 현저성 표지들”, 309-334 등을 보라.

73) S. E. Porter, *Idioms of the Greek New Testament*, 23. 이와 반대로 보편문법에서는 완결상을 전경으로, 비완결상을 배경으로 간주한다. S. H. Levinsohn, “Verb Forms and Grounding in Narrative”, S. E. Runge and C. J. Fresch, eds., *The Greek Verb Revisited*, 163-183, 특히 166-172가 제시하는 포터(S. E. Porter)와 롱에이커(R. E. Longacre) 사이의 비교 분석을 보라.

74) C. R. Campbell, *Basics of Verbal Aspect in Biblical Greek*, 38.

75) *Ibid.*, 42.

서사의 뼈대를 서술하는 기본 설정 시제(default tense)이며, 비완결상인 현재 시제-형태와 미완료 시제-형태, ‘상태상’인 완료 시제-형태는 이와는 다른 층위를 표현한다는 점에서도 상당한 공감대가 이루어진 것처럼 보인다.⁷⁶⁾ 따라서 각 시제-형태가 담론 내에서 담당하는 역할의 차이를 규정하고 이를 본문 분석에 활용하는 것은 주석적으로도 매우 유용하다. 예컨대, 서사문에서 사용되는 이른바 ‘역사적 현재’(historical present)는 서사문의 기본 설정 시제가 아니라는 점에 있어서나 그 상적 가치에 있어서나 부정과거 시제-형태에 비해 확연하게 두드러지는 형태이며, 그것이 사용된 취지를 따져보는 것은 본문의 서사적 논리를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⁷⁷⁾

문제는 이를 지나치게 기계적으로 적용할 때 발생한다. 전술했듯이, 특정한 시제-형태를 사용하는 것은 오로지 화자/저자의 의식적 선택의 문제만은 아니며, 해당 시제-형태의 선택 역시 특정 체계(이 경우 ‘행위의 방향’[태]이나 ‘행위자의 태도’[법]가 아니라 ‘관점’[상]을 선택하는 체계)의 절차를 기계적으로 따르는 경직된 과정도 아니기 때문이다.⁷⁸⁾ 그런데도 ‘두드러짐’(prominence)의 상대적 차이에 기초하여 시제-형태별 역할 차이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은 마치 각 시제-형태들이 표현하는 담론 요소들 사이에 모종의 위계가 성립하는 듯한 인상마저 준다.⁷⁹⁾ 예컨대 앞서 살펴본 예

76) S. E. Runge, *Discourse Grammar of the Greek New Testament*, 129; H. von Siebenthal, *Ancient Greek Grammar for the Study of the New Testament*, 310(§194e).

77) S. H. Levinsohn, *Discourse Features of New Testament Greek* (Dallas: SIL International, 2000), 197-213; S. E. Runge, *Discourse Grammar of the Greek New Testament*, 125-143.

78) 예컨대 M. A. K. Halliday의 체계기능문법(Systemic Functional Grammar)을 기반으로 ‘동사상 이론’ 관련 주장을 개진하는 Porter의 경우 고대 그리스어 동사상 체계 내의 이항 대립적 선택 과정을 강조하고 이를 통계적으로 입증하려고까지 하지만(S. E. Porter and M. B. O’Donnell, “The Greek Verbal Network Viewed from a Probabilistic Standpoint: An Exercise in Hallidayan Linguistics”, *Filologia Neotestamentaria* 14 [2001], 3-41), 기본 설정 시제라고 해서 무조건 무표성(unmarkedness)을 갖거나 나머지 시제들이 늘 유표성(markedness)을 갖는 것은 아니며, 설령 유표성을 갖는다 하더라도 그것이 다른 요소에 비해 더 중요한 것은 더더욱 아니다. “부정과거 누그러뜨리기”(thawing out the aorist)라는 제하의 윌리스(D. B. Wallace)의 다음과 같은 경고를 보라. “부정과거가 항상 그저 요약하기 위해서만 사용되는 것은 아니다. 부정과거는 (어휘나 문맥 따위의) 여타 언어적 요소들과 결합하여 흔히 그 이상의 역할을 담당한다.” D. B. Wallace, *Greek Grammar beyond the Basics*, 556.

79) 실제로 J. T. Reed and R. A. Reese, “Verbal Aspect, Discourse Prominence, and the Letter of Jude”, 187-189는 배경(완결상), 주제(비완결상), 초점(완료어간)이라는 역할을 할당할 후 각 시제-형태가 표현하는 담론 요소들의 중요도에 차등을 부여한다. 또한 J. T. Reed and R. A. Reese, “Identifying Theme in the New Testament: Insight from Discourse Analysis”, S. E. Porter and D. A. Carson, eds., *Discourse Analysis and Other Topics in Biblical Greek*, JSNTSup. 113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1995), 75-106, 특히 84-85를 보라.

수의 수세 장면과 그것에 이어지는 광야 시험 장면(막 1:9-12)에서 부정과거 시제-형태가 연이어 사용되다가 현재 시제-형태(이른바 ‘역사적 현재’)가 사용되었다고 해서, 마가가 이 단락에서 ‘수세’라는 주제보다 ‘시험’이라는 주제를 부각하면서 상대적으로 더 중요하게 다룬다고 결론 내릴 수 있는가? 오히려 마가는 광야 시험 장면보다는 수세 장면(막 1:9-11)과 예수의 운명 장면(막 15:37-39)을 긴밀하게 연결하되 두 단락 사이의 주제(예수의 정체성 드러남), 어휘(*σχιζομένους, ἐσχίσθη*), 장면(‘하늘’이 찢어짐)의 유사성을 강조함으로써 두 단락을 마가복음 이야기 전체를 감싸는 틀로 삼지 않는가? 그러니 기본 설정 시제인 부정과거 시제-형태만을 사용하지 않고 서사의 흐름에 따라 시제-형태에 변화를 주는 것은 분명 이야기 전개의 미묘함을 없애고 텍스트에 입체감을 주기는 하지만, 거기에 기초하여 사태의 중요도나 주제적 우선성을 읽어 내는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다. 오히려 바로 이 영역이야말로 주석적 면밀함과 균형 감각이 더욱 절실히 요구되는 지점이다.

4. 결론: 주석적 적용 가능성 및 제한점 제안

이제까지 나는 패닝의 회고적 평가를 중심으로 ‘동사상 이론’의 요점을 비교적 상세하게 설명하되 요목별로 나름의 비판적 평가를 곁들였다. 처음 이 이론이 신약성서 그리스어 연구에 도입된 이래 30여 년이라는 짧은 시간은 조정 기간을 거치면서 활발한 토론이 이어졌으며, 이제 상을 중심으로 고대 그리스어 동사 상당어들의 의미를 파악하려는 이 새로운 움직임은 한 세기 가까이 정사과학의 지위를 구가하던 *Aktionsart* 중심의 이해를 폐위시키고 어느 정도 정사과학의 위상을 획득한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이 주장은 여전히 일종의 ‘이론’이므로, 이론의 차원을 넘어 보편성을 확보하려면 앞으로 꽤 오랫동안 유효성과 해석 가능성의 견지에서 주석적 검증을 견뎌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현시점에서 ‘동사상 이론’은 주석적으로 활용하기에 좋은 ‘이론’인가? 나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점에서 이 이론이 기존의 *Aktionsart* 중심 이해보다 주석적으로 더 유용한 이론이라고 본다. 아울러 *Aktionsart* 중심의 기존 견해가 다양한 예외들을 설명할 수 없어서 이것들을 포괄할 수 있는 하나의 대안인 ‘동사상 이론’으로 서서히 대체된 것처럼, 향후 이 이론에 입각한 주석과 해석들이 충분히 누적되면 자연스럽게 이 이론의 유효성

이 보편적인 인정을 얻게 되리라 조심스럽게 전망한다.

그렇다면 어떤 점에서 그런가? 첫째, 이 이론은 기존의 정사학과이 예외라고 분류한 구절들을 조금 더 잘 설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예를 들어 아래의 구절들은 기존의 *Aktionsart* 중심 이해로는 설명이 곤란한 예외적인 것들인데,⁸⁰⁾ 해당 시제-형태를 상 중심으로 파악하면 제법 설득력 있는 해석을 제시할 수 있다. 두 구절을 *Aktionsart* 대신 상 중심으로 파악하면, 마가와 바울은 여기에서 ‘기뻐하고’ ‘다스리는’ 상황을 외부적인 관점에서 그저 ‘완결적’으로 언급할 뿐이라고 설명할 수 있는 것이다.⁸¹⁾

σὺ εἶ ὁ υἱός μου ὁ ἀγαπητός, ἐν σοὶ εὐδόκησα. (막 1:11)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ἐβασίλευσεν ὁ θάνατος ἀπὸ Ἀδάμ μέχρι Μωϋσέως (롬 5:14)

‘사망이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다스렸다.’

둘째, ‘동사상 이론’에 따르면 고대 그리스어 시제-형태들은 상적 가치를 주로 표현하며 이는 화자/저자의 관점을 변별적으로 나타내는 것이므로, 신약성서를 비롯한 고대 그리스어 텍스트의 어의를 새롭게 이해하는 참신한 통찰을 제공할 수 있다. 셋째, ‘완결상’과 ‘비완결상’의 역할 차이를 주의 깊고 면밀하게 파악한다면, 이를 본문 분석에 꽤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그럼에도 모든 ‘이론’이 그러하듯, 이 이론 역시 주석적으로 활용하는 데 몇 가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첫째, 어떤 시제-형태의 의미를 주석할 때 그것이 지닌 상적 가치를 지나치게 과장해서는 안 된다. 활용(conjugation)된 동사 상당어를 이해하는 핵심이 해당 어간의 상적 가치에 있음은 분명하지만, 접두 모음과 인칭 어미, 문맥, 장르, 시간 지시사 등에 의해 시제 가치도 동시에 표현될 뿐 아니라, 그렇게 활용된 시제-형태가 특정 텍스트에서 실제로 쓰이는 과정에 해당 단어의 어휘적 특성, 이러저러한 문맥적 요소 등이 서로 어우러지면서 일정한 *Aktionsart*도 현상적으로 표현되므로, 어떤 시제-형태가 표현하는 의미는 항상 복합적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주석 과정에 특정 시제-형태의 상적 가치를 배타적으로 부각하거나 이를 지나치게 과장하는 일은 늘 경계해야 한다. 내가 보기에 시제-형태가 지닌 상적 가

80) B. Burton, *Syntax of the Moods and Tenses in New Testament Greek*, 29-30; S. E. Porter, *Idioms of the Greek New Testament*, 39 등을 보라.

81) 물론 반례도 얼마든지 제시할 수 있다. 말하자면 ‘동사상 이론’으로 설명할 수 없는 예외들을 *Aktionsart*에 입각하여 설명할 수 있는 예들을 제시하면서 반대 논증을 펼 수도 있는 것이다. 이는 향후 제시될 다양한 주석적 연구들의 경합 결과에 달렸다.

치는 그 자체만으로는 특정한 주석적 주장을 감당하기에 상당한 무리가 있다. 외려 특정한 상적 가치에 기초해서 어떤 논증을 펼치기보다는 여기에 더해 문맥, 서사 논리, 어휘적 의미, 용례, 저자의 신학 등 다채로운 근거가 보완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둘째, 상이 화자/저자가 지닌 관점의 차이를 나타낸다는 점에 착안하여 텍스트 독해 과정에 화자/저자의 의식적 선택이나 문학적 의도를 읽어 내려고 시도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럽지만, 이 역시 매우 면밀한 주석적 검증이 필요하다. 오히려 고대 그리스어 동사의 시제-형태를 해석하는 과정은 상을 비롯하여 해당 동사의 어휘적 특성, 묘사되는 사태의 특징, 구문론적 요소, 문맥 등 다양한 요소들을 종합적이고 균형 있게 고려하는 세심한 작업을 요구한다. 무엇보다 이 과정에는 본문에 나타나는 특정한 시제-형태가 통례를 벗어난 형식인지를 면밀하게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

셋째, 상적 가치를 굳이 우리말 번역으로 구현하려 애쓸 필요는 없어 보인다. 전술했듯이 우리말 번역에는 상적 가치보다는 주로 시제 가치와 동작의 종류의 차이만 구현되는데, 이를 두고 두 언어 사이의 차이를 과장하면서 원어의 번역 불가능성을 암시하거나 원전만의 심오함을 과장할 일은 전혀 아니다. 시제-형태는 상적 가치를 내장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이러저러한 문맥적인 요소들과 어우러지면서 시제 가치와 동작의 종류를 표현하게 되며, 이는 우리말로도 제법 온전하게 그려낼 수 있다. 그러니 그때그때 상적 가치에 근거하여 문맥상 구현된 동작의 종류를 파악한 후, 이를 맥락상의 시제 가치와 잘 버무려 적절한 우리말로 옮기는 섬세함을 발휘하면 될 일이다.

마지막으로 화자/저자의 관점 차이에 기초한 본문 분석 과정에도 다소 보수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화자/저자가 구술이나 텍스트 서술 과정에 기본 설정 시제인 부정과거 시제-형태만을 일괄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서사의 흐름에 따라 시제-형태에 변화를 주는 것은 분명 내용 전개의 밋밋함을 없애고 텍스트에 입체감을 주지만, 거기에 기초하여 사태의 중요도나 주제적 우선성을 읽어 내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바로 이 지점이야말로 해석학적 조급함을 억누르면서 주석적 면밀함과 균형 감각을 발휘해야 할 기로다.

그럼에도 이와 같은 몇 가지 사항들에 주의를 기울인다면, ‘동사상 이론’이 가져온 다양한 통찰을 주석적으로 활용함으로써 기왕의 학자들이 갖지 못한 창발적이고 참신한 관점들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주제어>(Keywords)

담론 분석, 동사상 이론, 동작의 종류, 상, 신약성서 그리스어.

Aktionsart, Aspect, Discourse Analysis, New Testament Greek, Verbal Aspect Theory.

(투고 일자: 2024년 1월 9일, 심사 일자: 2024년 2월 22일, 게재 확정 일자: 2024년 2월 29일)

<참고문헌>(References)

- 고병찬, 김주한, “헬라어 동사의 상(相, aspect)의 주석적 사용의 주의점 제안”, 『신약연구』 10:4 (2011), 789-823.
- 구본관 외, 『한국어 문법 총론 I』, 서울: 집문당, 2015.
- 김천학, “동사와 상에 관한 유형론적 연구: 한국어의 완망상과 비완망상에 대하여”, 『한국어학』 57 (2012), 179-206.
- 남기심, 고영근, 『표준국어 문법론』, 서울: 탑출판사, 2011.
- 문숙영, “상 범주의 의미와 종류에 관한 몇 문제”, 『震檀學報』 120 (2014), 129-158.
- 박운만, “동사상과 빌레몬서 담화처리”, 『신약연구』 10:4 (2011), 941-976.
- 박운만, “신약성서 헬라어의 현저성 표지들(Prominence Markers)”, 『신약연구』 9:2 (2010), 309-334.
- 박진호, “시제, 상, 양태”, 『國語學』 60 (2011), 289-322.
- 오충연, 『상과 통사 구조』, 서울: 대학사, 2006.
- 우상혁, “성경 헬라어 상 연구: 칠십인경 중심으로”, 『성경과 신학』 60 (2011), 59-83.
- 장성민, “‘동사상 이론’에 비추어 본 마가복음의 서사 구조”, 『신약논단』 28:3 (2021), 501-534.
- 장성민, “마가복음에서 상위어(hyponym)로 쓰이는 λέγω의 현재 시제-형태 번역 제안”, 『신약논단』 29:1 (2022), 1-30.
- 장성민, “마가복음의 부사적 분사 번역 제안-마가복음 1:1-16을 중심으로”, 『신약논단』 26:2 (2019), 301-342.
- 장성민, 『중급 신약성경 헬라어 문법』, 서울: 한국성서학연구소, 2018.
- Allan, R. J., “Tense and Aspect in Classical Greek: Two Historical Development; Augment and Perfect”, S. E. Runge, and C. J. Fresch, eds., *The Greek Verb Revisited: A Fresh Approach for Biblical Exegesis*, Bellingham: Lexham Press, 2016, 81-121.
- Black, D. A., *Linguistics for Students of New Testament Greek: A Survey of Basic Concepts and Applications*, 2nd ed., Grand Rapids: Baker Books, 1995.
- Blass, F. and Debrunner, A., *A Greek Grammar of the New Testament and Other Early Christian Literature*, R. W. Funk, trans. and rev., Chicago: Chicago University Press, 1961.
- Blass, F., Debrunner, A. and Rehkopf, F., *Grammatik des neutestamentlichen Griechisch*, Vandenhoeck & Ruprecht GmbH & Co, 2021; org. ed. 1896.
- Brugmann, K., *Griechische Grammatik. II.i: Lautlehre, Stammbildungs und Flexionslehre, Syntax*, Munich: C. H. Beck, 1913; org. ed. 1885.

- Burton, E. D. E., *Syntax of the Moods and Tenses in New Testament Greek*, 3rd ed., Edinburgh: T. & T. Clark, 1898.
- Campbell, C. R., *Advances in the Study of Greek: New Insights for Reading the New Testament*, Grand Rapids: Zondervan, 2015.
- Campbell, C. R., *Basics of Verbal Aspect in Biblical Greek*, Grand Rapids: Zondervan, 2008.
- Campbell, C. R., *Verbal Aspect and Non-Indicative Verbs: Further Soundings in the Greek of the New Testament*, Studies in Biblical Greek 15, New York: Peter Lang, 2008.
- Campbell, C. R., *Verbal Aspect, the Indicative Mood, and Narrative: Soundings in the Greek of the New Testament*, Studies in Biblical Greek 13, New York: Peter Lang, 2007.
- Caragounis, C. C., *The Development of Greek and the New Testament: Morphology, Syntax, Phonology, and Textual Transmission*, Grand Rapids: Baker Academic, 2006.
- Comrie, B., *Aspect: An Introduction to the Study of Verbal Aspect and Related Problem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76.
- Culler, J., 『문학이론』, 조규형 역, 서울: 교유서가, 2016.
- Decker, R. J., *Reading Koine Greek: An Introduction and Integrated Workbook*, Baker Academic: Grand Rapids, 2014.
- Decker, R. J., *Temporal Deixis of the Greek Verb in the Gospel of Mark with Reference to Verbal Aspect*, Studies in Biblical Greek 10, New York: Peter Lang, 2001.
- Evans, T. V., *Verbal Syntax in the Greek Pentateuch: Natural Greek Usage and Hebrew Interferenc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1.
- Fanning, B. M., "Porter and Fanning on New Testament Greek Verbal Aspect: Retrospect and Prospect", S. E. Runge, and C. J. Fresch, eds., *The Greek Verb Revisited: A Fresh Approach for Biblical Exegesis*, Bellingham: Lexham Press, 2016.
- Fanning, B. M., *Verbal Aspect in New Testament Greek*, Oxford Theological Monographs, Oxford: Clarendon Press, 1990.
- Goodwin, W. W., *A Greek Grammar, Ancient Language Resources*, Eugene: Wipf & Stock, 2003 (1892).
- Huffman, D. S., *Verbal Aspect Theory and the Prohibitions in the Greek New Testament*, Studies in Biblical Greek 16, New York: Peter Lang, 2014.
- Isačenko, A. V., *Grammatičeskij stroj russkogo jajyka v sopostavlenii c slavackim:*

- Morfologija*, part 2, Bratislava: Slovak Academy of Sciences, 1960.
- Köstenberger, A. J., et al., *Going Deeper with New Testament Greek: An Intermediate Study of the Grammar and Syntax of the New Testament*, Nashville: B&H Academic, 2015.
- Lamb, G. E., “Verbal Aspect, *Aktionsart*, and the Greek New Testament: The Approaches of Constantine R. Campbell and Stanley E. Porter”, *Presbyterion* 43 (2017), 95-130.
- Levinsohn, S. H., *Discourse Features of New Testament Greek*, Dallas: SIL International, 2000.
- Levinsohn, S. H., “Verb Forms and Grounding in Narrative”, S. E. Runge, and C. J. Fresch, eds., *The Greek Verb Revisited: A Fresh Approach for Biblical Exegesis*, Bellingham: Lexham Press, 2016, 163-183.
- Mastrorarde, D. J., *Introduction to Attic Greek*, 2nd ed., London: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2013.
- Mathewson, D. L., *Verbal Aspect in the Book of Revelation: The Function of Greek Verb Tenses in John’s Apocalypse*, LBS 4, Leiden: Brill, 2010.
- McKay, K. L., *A New Syntax of the Verb in New Testament Greek: An Aspectual Approach*, Studies in Biblical Greek 5, New York: Peter Lang, 1994.
- McKay, K. L., “The Use of the Ancient Greek Perfect Down to the End of the Second Century AD”, *BICS* 12 (1965), 1-21.
- McKay, K. L., “Time and Aspect in New Testament Greek”, *NovT* 34 (1992), 209-228.
- Moule, C. F. D., *An Idiom Book of New Testament Greek*,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54.
- Olsen, M. B., *A Semantic and Pragmatic Model of Lexical and Grammatical Aspect*, Outstanding Dissertations in Linguistics, New York: Garland, 1997.
- Picirilli, R. E., “The Meaning of the Tenses in New Testament Greek: Where Are We?”, *JETS* 48:3 (2005), 533-555.
- Porter, S. E., *Idioms of the Greek New Testament*, 2nd ed., Biblical Language 2: Greek,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1994.
- Porter, S. E., “Linguistics and Biblical Interpretation”, S. E. Porter, *Linguistic Analysis of the Greek New Testament: Studies in Tools, Methods, and Practice*, Grand Rapids: Baker Academic, 2015), 83-92.
- Porter, S. E., *Verbal Aspect in the Greek of the New Testament with Reference to Tense and Mood*, Studies in Biblical Greek 1, New York: Peter Lang, 1989.

- Porter, S. E., Fanning, B. M. and Campbell, C. R., *The Perfect Volume: Critical Discussion of the Semantics of the Greek Perfect Tense under Aspect Theory*, Studies in Biblical Greek 17, New York: Peter Lang, 2015.
- Porter, S. E. and O'Donnell, M. B., "The Greek Verbal Network Viewed from a Probabilistic Standpoint: An Exercise in Hallidayan Linguistics", *Filologia Neotestamentaria* 14 (2001), 3-41.
- Reed, J. T. and Reese, R. A., "Identifying Theme in the New Testament: Insight from Discourse Analysis", S. E. Porter and D. A. Carson, eds., *Discourse Analysis and Other Topics in Biblical Greek*, JSNTSup. 113,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1995), 75-106.
- Reed, J. T. and Reese, R. A., "Verbal Aspect, Discourse Prominence, and the Letter of Jude", *Filologia Neotestamentaria* 9 (1996), 181-199.
- Robertson, A. T., *A Grammar of the Greek New Testament in the Light of Historical Research*, Nashville: Broadman Press, 1935.
- Runge, S. E., *Discourse Grammar of the Greek New Testament: A Practical Introduction for Teaching and Exegesis*, Peabody: Hendrickson Publishers, 2010.
- Smyth, H. W., *Greek Grammar*, Harvard University Press, 1920.
- Thompson, C. J., "What is Aspect?: Contrasting Definitions in General Linguistics and New Testament Studies", S. E. Runge, and C. J. Fresch, eds., *The Greek Verb Revisited: A Fresh Approach for Biblical Exegesis*, Bellingham: Lexham Press, 2016, 13-80.
- van Emde Boas, E., et al., *The Cambridge Grammar of Classical Greek*,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9.
- von Siebenthal, H., *Ancient Greek Grammar for the Study of the New Testament*, Peter Lang: New York, 2019.
- Wallace, D. B., *Greek Grammar beyond the Basics: An Exegetical Syntax of the New Testament*, Grand Rapids: Zondervan, 1996.

<Abstract>

**A Critical Appraisal of the “Verbal Aspect Theory”
and Suggestions for Its Exegetical Application and Limitations**

Sung-Min Jang
(Presbyterian University and Theological Seminar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ntribute to the ongoing debate by critically assessing some of the remarkable advances in the study of ancient Greek that have been made over the past thirty years or so, and to suggest some applications and limitations to the study of the New Testament. First, I present the following consensus among scholars in the debate based on a retrospective assessment by B. M. Fanning. (1) Verbal aspect is key to understanding the verbal meaning of ancient Greek verbs. 2) Aspect is a matter of viewpoint, i.e., the perspective from which the speaker views an action or state of affairs, and is a semantically distinct category from procedural or actional characteristics, commonly referred to as Aktionsarten or kinds of action. 3) The Greek aorist is the *perfective aspect*, while the present and imperfect are the *imperfective aspect*. 4) Greek verb forms play an important role in the organization of certain kinds of discourse. I then critically evaluate each of these items, and suggest some points to note the exegetical use of the Verbal Aspect Theory as follows. First, one should not overstate the aspectual value of a tense form during exegesis of its meaning. The aspectual value of a tense form is not, by itself, sufficient to support any particular exegetical claim. Rather than basing an argument on an aspectual value only, it should therefore be supplemented by a variety of other evidences, including context, narrative logic, lexical meaning, usage, and the author's theology. Second, it is quite natural to attempt to read the conscious choices or literary intentions of the speaker/author into the text reading process, given that certain verbal aspects represent a difference in the speaker's/author's point of view, but this too requires very careful exegetical verification. In this process, it is important to closely examine whether certain tense forms in the text are out of the ordinary. Third, it seems unnecessary to try to implement aspectual values in Korean translations. Although aspectual values are encoded in tense forms, they actually express tense values and Aktionsarten

in combination with other contextual factors, which can be translated quite well into Korean. Finally, the process of analyzing texts based on differences in speaker/author perspectives also requires a somewhat conservative approach. This is where we need to exercise exegetical care and balance while suppressing hermeneutical impatience. In conclusion, I believe that if we pay attention to these points, we can make exegetical use of the various insights brought about by the Verbal Aspect Theory, and thus offer creative and novel perspectives that have not been available for previous studies.